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2016 여름 Vol. 3

특집 제주의 바다





홍진숙 작 생명의 섬_냇길이소 장지에 채색, 210.5×149cm

표지그림 '생명의 섬, 냇길이소'는 제주 물의 생명력을 표현한 작품이다.

강정천 상류 냇길이소의 원시적 풍경과 그 안에서 생동하는 기운을 남다른 시각과 정서로 담아냈다.

제주에 고향인 작가 홍진숙은 13회 개인전을 하였으며 제주의 자연, 신화, 역사 등을 소재로 회화와 판화 등의 작품을 발표해 왔다. 그녀는 서울, 일본, 대만, 중국, 프랑스에서도 전시 활동을 하며 독특한 작품세계를 인정받고 있다.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발행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발행일 2016년 7월 28일(여름호 통권 제3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연동) 전화 064.710.2051

편집장 공보관 김현철 편집위원 고경대 김순자 김오순 이수진 이재근 최재영

기획·취재 도서출판 신우 편집부 디자인·인쇄 신우인쇄/제주시 연미길 82 2층/064.746.5030

© 제주특별자치도 소식지 '제주'에 실린 내용물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지합니다.

"제주" 정기구독은 홈페이지(www.jeju.go.kr/도정뉴스/온라인간행물/소식지 신청) 또는 전화(064.710.2052)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단,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요).

CONTENTS

2016 여름 Vol. 3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자연 제주의 바다 04

키워드로 읽는 제주라는 섬

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05 동아시아 해양 문명의 거점, 제주 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08 해안선 따라 펼쳐진 제주 어로문화의 생생한 현장 좌승훈 (제주언론인클럽 사무처장)

14 제주의 물빛 이일섭 (사진작가)

16 바다의 자연 그물 '원담' "멜, 뽕에돔, 따치, 솔치도 들었지" 김선희 (방송구성작가)

20 제주도 '도대'를 아십니까?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24 여름 환상해변

28 제주산물, 그 의미와 가치 마을을 만들어 낸 삶의 원동력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32 "제주바다는 내 가치관을 오롯이 바꾼 선물" 야그네 라티니테 (일러스트레이터)

사람 제주해녀 34

바다와 함께 한 제주해녀의 삶

유철인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35 인류 유산 '제주해녀'는 제주의 정신 김순이 (제주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 부위원장)

40 바당밭과 빌레왓(돌밭)을 일구는 슈퍼해녀 경옥 씨 송세진 (여행칼럼니스트)

44 해녀 양성의 요람 한수풀해녀학교 노우정 (해녀학교 졸업생/프리랜서 작가)

문화 제주의 마을 48

49 에메랄드그린 바다 위에 솟은 화산섬 비양도 이준석 (PD, 아일랜드TV)

53 청보리 푸른 물결로 일렁이는 섬, 가파도 김영희 (프리랜서 작가)

56 넓은 바당밭을 가진 유구한 역사 구좌읍 하도리 이선아 (프리랜서 작가)

62 중산간부터 해안에 이르는 꽃자왈 깊은 화순리 장혜리 (㈜아일랜드스토리 작가)

풍경의 기록

68 시간을 잇다 소정방폭포 '백중' 날 물맛이 서재철·이한구 (사진작가)

제주의 맛

70 제주의 여름 밥상 "부루 흑곰 톨앙 오리" 양용진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장)

걷다가 제주발전

74 편백나무가 있는 나의 숲으로 가다 서귀포 치유의 숲

제주어 산책

78 바당서 건정 올린 보배로운 제주어 김순자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해변축제

80 제주국제관악제, 도두오래물축제, 쇠소깍축제, 이호테우축제

제주는 지금

84 코딩교육으로 미래산업의 '주도권' 잡는다 이재근 ((사)제주마을소소리문화연구소 이사)

88 제주만의 인증 Made in Jeju, 제주상품 가치 빛낸다 경제정책과

90 제주도제 70년! 대한민국의 미래 '제주'를 보라! 공보관

92 2016년 제주의 가을축제





키워드로 읽는 제주라는 섬

글 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제주도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다. 그것도 화산섬이다.
또한 탐라 시대부터 이어진 오랜 역사의 섬, 산과 바다가 아름다운 생태의 섬이며,
전통문화가 남아 있는 민속의 섬이자 민란과 평정이 거듭된 반란의 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제주도를 육지에 떨어진 변방의 섬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로 진출한 역동적인 섬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해양적 관점에 기반하여 동아시아 역사를 '베이징-서울-도쿄'로 연결하지 않고 '타이완-제주-오키나와'로 연결해 본다면
전혀 새로운 시각의 역사가 탄생할 것이다. 바로 '해양중심적 사관'으로의 전환이다.
더불어, 역사·자연·신화·생태·민속·관광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통섭적 시각으로 제주도를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제주도는 자연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가 신화를 이루어내는 통섭의 극치에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해양적으로 읽어내는 몇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본다.

화산의 섬 | 지질학적 장기지속과 제주 바다를 주목한다. 빙하기, 간빙기 등 제주바다 형성을 둘러싼 장기지속적 관점에서의 제주의 역사와 고고학적 접근. 제주도 역사가 바다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제주도 탄생의 비밀인 화산도 환태평양 화산 권과 무관할 수 없다(실제로는 약간 벗어나 있으나 연관이 있음). 화산도이면서도 그 흔한 화산박물관 하나 없다는 말은 그만큼 화산을 등한시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람의 섬 | 제주의 바람은 문명의 네트워크를 가능케한 동력이었다. 일상적이며 특별하고도 평범한 바람을 마다하고서는 제주학연구가 불가하다. 그러나 영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웃 중국의 마조, 미크로네시아의 바람신 등 비교문화사적 바람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돌의 섬 | 돌에서 왔다가 돌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섬. 특히 제주 돌쟁이의 손노동이 빚어낸 제주의 멋은 더할 나위 없다. 제주도 돌문화의 미학적 연구는 육지 및 서구 수입 미학에 포섭되면 아니될 것이며 독자적인 시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여자의 섬 | 강인한 제주 여성 담론에 대한 젠더적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제주 여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면, 여타 섬들의 여성은 어떠한가? 태평양 전반에 모권적 사회가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고, 대체로 섬은 여성이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 역시 세계 섬의 젠더적 역사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잠녀의 섬 | 해녀 한 명이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해녀들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이다. 그간 잠녀연구는 대체로 민속학, 국문학 등의 영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제 잠녀에 관한 관심이 전면적으로 넓혀지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표류의 섬 | 표류는 인간의 항해기술력 조건과 자연적 조건이 불합리하게 만나서 이루어지게 되는 우연과 필연의 산물이다. 표류는 우연이지만 필연이고, 필연이지만 우연이기도 하다. 하멜의 표류, 제주민의 베트남·오키나와·대만 등으로의 표류가 주목된다.

해금과 유배의 섬 | 오랫동안 제주인의 발목을 출륙금지령이 잡았다. 그리하여 제주도는 갇힌 섬이 되었고, 해금은 제주도를 일정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그 감옥으로 유배를 왔다. 섬이기에 주어진 숙명이었다. 추사가 대표적인 좋은 사례이다.

테우리의 섬 | 탐라의 정체성 안에는 몽골과의 연관성이 녹아 있다. 몽골제국은 세계해양강국으로서도 의미가 있었다. 원이 제주도를 직할령으로 관장하고 목장 섬이자 자신들의 원대한 이상적인 섬으로 간주한 역사가 테우리 전통에 잘 각인되어있다.

신들의 섬 | 에게해의 올림푸스 신들에게 열광하는 한국의 대중들이 제주도의 본향당과 신들에게 일반적으로 무관심(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한 것은 글자 그대로 사대주의일 뿐이다. 섬으로서의 제주의 특징은 신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역사로 본 해양문화

동아시아 해양 문명의 거점, 제주

글 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물질 나가는 해녀들 © 서재철

주변과 교역하고 소통한 거점지역

한반도의 문명교류에서 지금까지는 북방문화와의 일방적인 루트만 강조되었다. 고대문명은 북방 육로뿐만 아니라, 남방 해상활동을 통해서도 교류했는데, 남방문화와의 교류를 탐라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해양과 대륙의 문화가 만나고, 바다와 육지를 매개하는 도서라는 지리적 위치와 생태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여러 지역의 문화들이 교차되어 온 곳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볼 때

제주도는 변방에 위치하는 섬인지 모르겠지만, 해양문화의 시각에서 볼 때 제주도는 주변의 지역들과 교역하고 문화적 소통을 이루어온 거점지역이었다.

제주가 지금의 섬 모양을 띠기 시작한 1만 년 전 고산리 초기 신석기시대 유적, 서북 문화집단이 거쳐 간 상고시대 전설, 벽랑국 세 공주가 농경·목축문화를 갖고 제주섬에 들어왔다는 탐라개벽신화 등은 탐라 이전 해양문화의 유입 실상을 잘 보여준다.

섬나라 탐라는 한반도, 중국, 일본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고 자주적으로 교역하던 고대 해상국가였다. 탐라 시대의 제주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절해고도가 아니라 고대 동북아시아 해상교류의 거점지역이었다. 이미 3세기 말경에 중국의 진수가 지은「삼국지」위서 동이전에는 탐라(州胡)가 삼한과 교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1928년 제주시 산지 항에서 1세기경의 중국 화폐들이 출토됐던 것으로 보아 고대 탐라는 활발한 해상무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탐라는 5세기 후반부터 교역활동 범위를 백제, 고구려, 신라, 당, 일본까지 넓히고 있었다.

6, 7세기는 탐라의 전성기였다. 660년 백제가 멸망하자 탐라는 백제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를 펼쳤다. 661년, 665년에 탐라의 왕과 사신이 당에 조공사절을 파견해 태산에서 배풀어진 제천의례에 신라, 왜국 사절들과 더불어 대등한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은 탐라를 외교적으로 대등하게 대우했다. 그래서 신라의 경우도 탐라를 결코 무시하지 못할, 어쩌면 버거운 상대로 여겼다. 이처럼 적극적인 대외교류의 과정에서 외교와 무역을 관리하는 정치·사회적 지배계층이 성장하면서 탐라는 강력한 해양왕국으로 발전했다.

탐라 사람들은 배를 직접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서 말과 전복 등 제주의 특산물을 내다 팔고 식량과 각종 생활 도구 등을 사들였다. 섬에서 나는 풍부한 목재를 활용해 배를 건조하는 기술도 빼어났고, 항해 능력도 뛰어났다. 1012년(고려 현종 3) 8월에 “탐라 사람들이 와서 큰 배 두 척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탐라 사람들의 조선 기술을 고려 왕조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이후 독립국 지위상실, 지방으로 전락

삼국을 통일한 신라보다 더 오래도록 왕국의 수명을 이어간 천 년 해상왕국 탐라는 고려 왕조가 들어서자 독립국의 지위를 잃고 결국 1105년(숙종 10) 일개 지방으로 전락하고 만다. 고종 때(1213~1259) 탐라의 명칭은 지방을 뜻하는 지금의 ‘제주(濟州)’로 바뀌면서 그 운명을 다하였다.

제주 사람들은 고려 왕조에 편입된 직후 중앙에 공물을 바치는 일로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 이러한 중앙의 수탈에 대한 반발로 제주 사람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민란을 일으켰다. 1270년 삼별초가 중앙정부와 몽골에 대하여 저항하여 입도하자, 제주인들은 이들과 연합하여 고려조정과 몽골 세력에

맞서 항전을 펼쳤다.

삼별초가 진압된 이후 수십 년간 제주도는 몽골이 직접 지배하는 영역이 되어 섬 곳곳에 목마장이 설치되었다. 고려가 제주도에 대한 가치를 별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반면, 몽골의 제주도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였다. 몽골은 제주도를 해양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일본 정벌을 준비하였다. 무려 3천 척의 배를 제주에서 만들었으며, 전함 수리소도 제주에 직접 설치 운영하였다.

제주도가 해양 진출의 교두보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제주인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비록 자율적인 입장에서 대외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제주인들은 몽골, 일본, 한반도에 에워싸여 있는 동아시아 해역을 자신들의 활동 무대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조선왕조는 고려 시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함으로써 제주도가 중앙의 입장에서는 변방으로 취급되었다. 제주도는 인물의 고향이 아닌 말의 산지로 더욱 알려지고, 중앙정치의 희생자들이 귀양 오는 유배지로 인식되어 갔다. 제주인들의 대외관계는 한반도와의 단선적인 접촉에 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선전기에 제주인들은 바다를 무대로 자유롭게 활동하였다. 제주에서 탈출하여 출륙한 포작(鮑作) 해민들은 배를 집으로 삼아(「조선왕조실록」의 ‘以船爲家’) 바다를 무대로 이동하고 장기간 제주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은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 무리를 이루어 집촌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사료에는 이들을 일컬어 ‘두독야지(豆毒也只)’나 ‘두무악(頭無岳)’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순신이 일본과의 수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던 옥포해전 당시 선두에 나선 전선은 제주 해민들의 포작선 46척이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제주인들에게는 폐쇄적 상황이 강요되었다. 17세기 인조 때부터 내려진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이 19세기 초까지 2백 년 동안 지속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은 철저하게 폐쇄적인 삶을 강요당하였다. 그러나 격절의 공간 변방의 섬이란 한계를 뚫고 18세기에 들어서 외부와의 교역이 다시 이루어지고 수공업과 상업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건의 변화 속에서 제주 여인 김만덕은 거상이 되어, 갑인년(1794) 대 흉년 때 직접 자신의 배를 내어 내륙지방으로부터 쌀을 들여와 진휼하기도 하였다.

개방 이후 근대 사회로 변화 몸부림

19세기 말 제주도는 근대사회로 넘어가기 위하여 꿈틀거리고 있었다. 1876년 개항 이후 제주도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인 어부들이 제주도 어장으로 진출하며 제주도 연안 마을에 모습을 나타냈고, 천주교 선교사들이 섬에 들어와 서구의 종교와 문화를 전파하였다. 개항과 개화정책의 시행에 따라 제주도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제 제주도는 출륙금지령을 내려 유배의 섬으로 묶어놓았던 조선왕조의 변방이 아니라, 자본과 문명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갔다. 19세기 말 제주인들은 세계와 만나고 있었다.

개항은 교통과 산업의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해 많은 제주도민은 새로운 일터를 찾아 내륙지방이나 일본 등지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18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해녀들의 내륙지방 출가 물질은 조선 후기 출륙금지령에 얽매어 있던 제주 여성들의 해양유목민 기질을 더할 나위 없이 보여준 특수한 현상이었다.

침탈과 저항의 역사로 점철된 식민지시대에도 제주사회는 꾸준히 내면적인 변화의 움직임으로 꿈틀대고 있었다. 인구는 이전보다 급격히 늘었고,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수많은

제주민이 일본 오사카의 공장을 찾아 제주 바다를 건넜다. 해녀들은 무리를 지어 남해, 동해, 일본 연안 등으로 출가 잠수 노동에 나섰다. 이제 제주 사람들은 제주도 안에 갇혀 살지 않고 밖에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해방 후 20세기 중엽부터 섬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항공기와 선박기술의 발달로 섬의 독특한 문화, 매력적인 자연경관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찾아지기 시작했다. 경제구조가 취약한 섬 정부와 섬사람들은 관광을 섬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력한 산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세계의 섬들에서는 삶의 질 향상, 방문객 관리, 자연환경 유지 등을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균형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자치 지방정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섬을 변방, 바다를 격절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저히 적어졌다. 섬은 오히려 새로운 해양 문명의 중심이고, 인류 문명이 지속 번영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제주 섬사람들이 전승 발전시켜온 해양문화를 발판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섬의 미래 발전 방향을 찾아 나갈 시점이 지금이라고 하겠다.

19세기 말의 산지향
(출처: 사진으로 본 한국의 백년)



제주 포구와 제주 사람

해안선 따라 펼쳐진 제주 어로문화의 생생한 현장

글 최승훈 (제주언론인클럽 사무처장) 사진 이일섭

제주 사람들은 바다와 더불어 살아왔다. 제주의 선민들은 갈아먹을 땅이 척박하여 고기잡이를 위해 바닷가 마을마다 포구(浦口)를 만들었다. 그러나 제주는 화산섬이어서 천혜의 조건을 갖춘 포구가 드물었다. 화산이 터지면서 뿜어 나온 용암은 바닷가로 흘러들어 죄다 크고 단단한 돌밭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제주의 선민들은 돌덩이를 일일이 등짐을 저 나르거나, '빌레(너럭바위)'를 정과 망치로 깨 포구를 축조해야 했다. 송송 구멍이 난 화산석은 제주 사람들의 땀방울로 얼룩졌고, 거친 바다와 싸워야 하는 숙명적인 생활이 함께 침잠해 들어갔다. 술한 세월 동안 깎이고 깎인 돌덩이를 있는 그대로 들어다가 몇 겹으로 쌓아 올려 만들어진 제주의 포구는 제주 사람들의 삶 그 자체요, 역사의 시원(始原)이었다.



자연 지형물을 최대한 활용

제주의 선민들은 포구를 만들면서 무작정 아무렇게 힘을 쏟았던 게 아니다. 돌덩이를 쌓더라도, 주변의 ‘여·코지(곶)’와 같은 자연 지형물을 최대한 활용했다. ‘여’는 수중 암초다. 밀물 때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다가도, 썰물 때면 모습을 드러낸다. 방파제를 쌓기에 안성맞춤이다.

포구에는 살아남기 위한 온갖 지혜들이 짜 모아졌다. 대표적인 게 바닷길이다. 제주의 선민들은 어선이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닷속에 포구로 드나드는 길을 만들었다. 수중 암초로 인해 썰물 때는 자칫 좌초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바닷길은 포구 사람들의 생명 줄과도 같았다.

포구는 실용적으로도 잘 설계되어 있다. 대개 안개[內浦], 중개[中浦], 밖개[外浦]로 나뉘 축조됐다. 이는 어선들이 입·출항 순서별로 정박도록 함으로써, 드나듦의 혼잡함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제주도 내 포구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수심이 낮아 썰물 때면 ‘걸석’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걸석’은 썰물 때면, 포구에 정박 중인 배 밑바닥이 해면에 닿아 기우는 현상을 말한다. ‘튼석’은 그 반대다. 이에 따라 비교적 수심이 깊은 ‘밖개’는 곧 출항을 앞둔 어선들이, ‘안개’는 조업을 미루거나 준비를 필요로 하는 어선들이 정박했다. 또한, 포구에 배를 댈 때는 뱃머리나 배 밑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개낭’을 설치했다. ‘개낭’은 현재 배를 댈 때 완충장치로서 선체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착하는 ‘자동차 타이어’와 같은 역할을 했다.

제주의 포구는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제주 선민들의 삶의 흔적들이 잘 응축된 곳이다. 포구 주변에는 으레 ‘지방어’라는 지형이 있다. ‘지방’이란 종잇조각에 지방문을 써서 만든 신주(神主)다. 보제기(어부를 이르는 제주말)들에게는 포구가 집이나 다름없는 보금자리였다. 또한 포구에는 풍어 만선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갯당’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마을의 액운을 막으려고 방사탑(防邪塔)도 만들었다.

이뿐 만 아니다. 포구에는 ‘원담(갯담)’, ‘도맏불’, ‘불턱’, ‘용천수 터’, ‘바닷길’, ‘고기밭’, ‘소금밭’, ‘방사탑’ 등과 같은 제주 어로문화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불턱’은 해녀들이 물질 하면서 옷을 갈아입거나, 불을 쪄며 쉬는 곳이다. ‘원담’은 바닷가에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쌓아 만든 돌담이다. ‘원’ 또는 ‘개’라고 한다. 돌로 만든 그물인 셈이다.

삶의 고난이 소금의 알갱이처럼 말라붙은 곳

제주시 용담 2동 ‘다끈개(뒸은개)’는 개발 바람에 밀려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실항민들의 비원이 남아있다. 포구는 바닷가 너럭바위인 ‘넙빌레’를 일일이 정과 망치로 깨서 만들었다. 그래서 ‘뒸은개’다. 마을 이름도 ‘닥그네(수근동)’다. 그러나 이 마을 170여 가구 700여 주민들은 제주국제공항 확장과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다, 결국 통째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철거민의 한(恨)은 포구 옆 용천수인 ‘양원수(養源水)’ 터에 유적비로 남아 있다.

“우리는 이제 생활의 보금자리를 각각 사방으로 옮겼으나, 아버지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 땅을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잊지 않게 하려고 양원수가 흘렸던 ‘물동산’에 애향의 동산을 만들고… 언젠가는 다시 향토로 돌아갈 것이다.”

한림읍 월령리 ‘월령축항(築港)’에는 ‘4·3’이란 통곡의 기억이 파편처럼 널려 있다. 포구는 1948년에 축조됐다. 당시 김병옥 구장(區長)은 마을 젊은이들을 잡아놓기 위해 포구를 만들었다. 난리에 휩쓸려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사람들은 당시 ‘쇠늪은 빌레’를 일일이 정으로 쪼아가며 포구를 만들었다. 얼마나 일이 고됐던지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바다로 쏠렸으며, 김 구장의 판단은 적중했다.



1.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큰개’. 현재 전통 포구 복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2. 용담 2동 ‘다끈개(뒸은개)’. 철거민의 한(恨)은 포구 옆 용천수인 ‘양원수(養源水)’ 터에 유적비로 남아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의 '망장포'는 목마장의 말을 실어 나르던 조공포다. 간만의 차를 고려해 선착장에 돌계단을 쌓아 놔다. 작지만 포구의 쓰임새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던 제주 선민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 서재철

질곡의 역사는 제주시 애월읍 동귀리 '군녕이'와 서귀포시 법환동 '막숙(幕宿)'에도 남아 있다. '군녕이'는 항파두리로 가는 길목에 있다. 흔히 군항(軍港)이라고도 한다. 고려 원종 14년(1273), 삼별초 김통정이 러·몽 연합군에 맞서 항파두리성을 축조하고 이곳과 인접한 동귀리에 전초기지과 군항을 만든 데서 유래됐다.

'막숙'은 '변방 새(塞)를 써 '새포(塞浦)'라고도 한다. 군사 요충지였다. 고려말 최영 장군이 '목호(牧胡)의 난'을 진압했던 최후의 격전장이다. 막숙 인근 '배연줄이'는 목호 잔당들이 범섬으로 도주하자, 이를 완전히 소탕하기 하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 범섬과 연결했다는 데서 유래된 지명이다.

남원읍 위미1리 포구, '앞개'는 '이승의 한끝'이자 '이어도로 가는 길목'이다. 위미리 사람들은 해마다 음력 칠월 초닷셋 날이면, 이승을 뜬 이 마을 보제기들에 대한 애도의 뜻과 해

신(海神)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다 일을 그만둔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포구를 눈앞에 두고 '돛갱이(돛풍)을 만나 침몰, 모두 익사하면서 위미리 관내 제삿집이 19군데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어찌랴. 이곳에서 낳고 자란 시인 오승철은 "누가 떠나고/ 누가 돌아왔는가 / 아버님, 할아버님/ 다 뜨시고 빈 마을/ 앞개는 이승의 한끝 / 이어도 가는 浦口였네"라며 슬픔에서 비롯된 억울함과 고단함을 끌어안고 다시 일어났다. 그 앞에는 지금도 가열찬 생업의 터전이 일렁이고 있다.

구좌읍 하도리 '한개창'은 제주 작가 현기영의 소설, 「바람 타는 섬」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다. 「바람 타는 섬」은 세화 증녀 투쟁을 토대로 한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간 증녀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바람 타는 섬」의 모든 이야기는 1932년 1월 12일과 24일의 세화장터로 집결된다. 당시 세화장터는 김녕·

평대·종달·시흥·오조리 마을은 물론, 멀리 우도 주민들도 10여 척의 돛배를 타고 장에 나와 생활필수품을 사고팔던 곳으로, 인근 '한개창'은 제주 동부지역 교역 중심지로 자리매김 됐다. 당시 이곳, 정어리 장수들은 함경도 청진·원산까지 나가 정어리를 값싸게 사들인 후, 이곳에서 팔아 큰 이득을 봤고, 포구 주변 곳곳에 기와집을 지었다고 한다. 평대리 사람인 김보임은 '한개창'의 마지막 옹기장수로 기억된다. 그는 돛이 3개인 3대선을 타고 전남 목포·완도 등지를 드나들며 장사를 했다. 3대선은 크기가 지금의 10톤 어선만 하다.

자연 현상에서 유래된 포구 지명

한경면 용당리 '설해개'의 '설해(雪海)'는 '눈 바다'다. 풍향, 풍속이 따로 설명되지 않은 제주의 거센 바람은 파도를 수없이 일으켜 물으로 보냈다. 그리고 갯바위에 부딪힌 파도는 설 새 없이 하얀 포말을 허공에 뿌렸다. 그 모습이 마치 눈발처럼 휘날린다고 해서 '설해개'다. '설해개' 인근의 드넓은 돌밭도 '설해빌레'다.

서귀포시 송산동 '수전포(水戰浦)'는 두 갈래의 해류가 마치 '물싸움'을 하듯 포구 중앙을 감싸 돈다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두 갈래의 해류는 포구 정면에 자리 잡은 '새섬'의 '동모'와 '서모'에서 흘러든 것으로 지형적 영향이 크다.

남원읍 하례리 '망장포'는 지명에서부터 바다 내음이 가득하다. '그물 망(網)자'와 '벌일 장(張)자'를 써 '망장(網張)'이라고 했다. 어망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었길래 '망장'이었을까? 물론 다른 견해도 있다. '망장포' 인근 '예촌망'에 봉화대가 있었으며, 이곳에서 봉화를 올렸다고 해서 '바랄 망(望)자'를 써 '망장(望張)'이라는 것이다. 고려 말에는 조공포로서, 목마장의 말을 실어 날랐다는 이곳은 현재 포구로서 쓰임새를 다 했다. 포구 입구에 있는 '오각돌'은 한때 이곳이 어항이었음을 보여준다. '오각돌'은 일종의 '항로 표지석'이다. 수심이 낮은 데다 곳곳에 암초가 있어 어선들의 드나들이 여의치 않자, 오각형태의 돌덩어리를 바위 바닷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한 이곳은 제주도 내 어느 포구와는 달리, 간만의 차를 감안해 선착장에 3~4단의 돌계단을 오밀조밀하게 쌓아 놨다. 배를 언제든 지낼 수 있도록 포구의 쓰임새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던 제주 선민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중산간에서는 못 살겠다."며 포구를 만든 곳도 있다. 한경면

관포리의 '엄수개'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한경면 저지리에 살던 '변(邊)엄수'라는 사람은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바닷가 용천수를 길러왔다가 그만 물허벅을 깨트리려는 바람에 아예 "웃드르에서는 못 살겠다."며 눌러앉은 게 관포리 설촌의 시초라고 전해진다. 포구 지명도 포구를 축조한 사람의 이름을 따 '엄수개'라고 했다. 다른 주장도 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파도에 휩쓸려 뱃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해서 '엄수개'라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엄수개'는 '바다가 엄한 포구'다. 남원읍 신흥1리 포구는 지형이 '보말'같이 생겼다고 하여 '보말개'다. 제주 선민들은 바닷가에 수닥수닥 붙어있는 그 흔한 해산물인 '보말'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보말도 ㄱ기어'라고, 먹을 것이 궁할 때는 보말도 고기처럼 귀하게 여겼다.

포구 주변 지형지물은 기상관측의 기능자

남원읍 태흥1리의 포구 '내깎'과 '서수포'도 예외는 아니다. 이곳 보제기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적어도 바람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 즉 '내깎'의 절(파도)이 올면 동마파람이 불며, 비가 온다. 인근 '들룽머리'의 절이 올면 서마파람이 분다고 했다. 또한 '서수포'의 절 소리가 '쿵쿵'거리면 하늬바람이 세게 불며, '파지직 파지직'거리면 하늬바람이 약하게 분다고 했다. 섬이나 산도 활용된다. 멀리 내다보이는 섬석 위에 구름이 살포시 붙으면 장마가 시작된다. 또 지귀도가 물 위에 뜨면 몹시 춥거나 바람이 거세게 분다. 한라산에 구름이 옹크러지거나 사납게 보이면,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눈이 온다고 한다. 또한, 남원읍 신례리 '공천포'에 있는 '뱃주리빌레'의 절 소리가 세고 빠르면, 어로작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뒷날 어김없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거세게 인다. 이는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노련한 보제기들의 몸에 밴 습관이다.

모든 만남은 포구에서 이뤄졌다

이 땅의 끝 포구는 바다와 만났고, 바다는 또다시 포구와 만났다. 포구는 제주 선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표류하던 외국 선박들이 기착지였다. 또한 포구는 고려와 조선조에 걸쳐 유배인들이 오가는 길목으로도 터 잡았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무근성창' 인근에 자리 잡은 '연북정(戀北亭)'은 제주로 파견된 관리 또는 유배인들이 고향과 임금이 있는 북녘 한양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던 정자다.

또한, 제주시 화북포구의 옛 이름은 '별도(別刀)'다. 칼로 애를 끊는 듯한 사연이 깃든 이별의 현장이다. 아마 선정(善政)을 편 목사와의 이별은 애를 끊는 듯한 이별이었을 것이고, 폭정을 편 목사와의 이별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단호한 이별이었을 것이다.

화북포는 포구가 둘이다. '영물머리'와 '금돈지'다. 이 두 포구는 산지향이 축조되기 이전까지 제주의 관문이자, 유배의 길목이었다. 제주목(濟州牧)과 가까워 유배인을 인계하기에 적당했다. 뱃길은 전남 해남·강진·영암으로 이어졌다.

'아~, 여기까지 오면 끝장이다. 이 관북도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화북포로 향하는 제주 뱃길 한 편에 자리 잡은 섬 이름조차 '관탈(冠脫)'이다. 귀양살이에 대한 유배인들의 애절한 심정이 녹아 있다.

남원읍 태흥2리의 '관선자리'는 소금을 운반하던 관선이 드나들었다고 해서 '관선포(官船浦)'라고 한다. 「한국수산지」에 따르면, 1908년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이 무려 1천439근이 나 된다. 1근은 0.6kg이니, 당시로선 대단한 것이었다.

'관선자리' 또한 만남의 기쁨보다 이별의 아픔이 더 컸던 포구다. '관선자리'는 '대스렁코지'와 '애비리코지' 사이에 있다. 이 중 '대스렁코지'는 관선을 맞았던 곳이다. '애비리코지'는 이 보다 더 바다 쪽으로 나간 곳에 있다. 헤어짐의 장소다. 이곳 사람들은 "'대스렁'과 '애비리'는 만남과 이별의 뜻을 담고 있다면서 '애비리'가 '대스렁'보다 더 바깥에 있는 것은 만남의 기쁨보다 헤어짐의 아픔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했다.

포구 사람들의 삶을 좌우한 바람

어떤 바람은 불면 물살이 거칠어지고, 또 어떤 바람은 바닷길을 열어준다. 한림읍 귀덕2리 '진질개'는 바람에 매우 민감한 곳이다. '진질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진질코지'는 호랑이가 포효하듯 일 년 내내 크고 작은 바람에 시달린다. 봄 셋바람, 여름 파과람, 가을 갈바람, 겨울 하늬바람만 있는 게 아니다. 신셋바람, 갈마과람, 산북 쇠바람, 댕바람, 돛개, 스타니 등도 있다. 하늬바람도 서하니, 갈하늬, 높하늬로 나뉜다. 태풍은 '넘친 바람'으로 통한다. 한라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을지풍'이라고 했다. 알려주는 대로, 대충 감만 잡을 뿐이다. 이곳에 불박고 살지 않는 한, 바람의 방향과 습성을 일일이 따지기 어렵다. 섬의 이쪽에서 불어서 한라산을 넘고

섬의 저쪽에 가 닿으면 어느새 바람 이름도 바뀌고 만다.

오죽하면, 한림읍 협재리 사람들은 포구를 '살통'이라고 불렀을까? 풍파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배가 일단 포구에 들어서면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다.

지금은 매립이 되었지만, 구좌읍 평대리 '갯머리' 포구에는 '목포 뜻은굽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뜻은굽이'는 '안전한 곳' 혹은 '따뜻한 곳'을 말한다. 목포는 큰 항구다. 원양에서 돌아온 어선들의 편안한 안식처다. 항구가 워낙 커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없다. '갯머리'의 '목포 뜻은굽이'도 목포항 못지않게 어선들의 안전한 피항지였으리라.

우도 최북단 하늬바람의 길목, 전흘동에 자리잡은 포구는 '개맛'이다. 동네 이름을 붙여 '전흘동개맛'이라고 한다. '맛'은 '입구'나 '길목'을 뜻하는 제주말이다. 포구는 안개와 박개로 나뉘어져 있다. 포구 앞에는 '압튼여'가 있어 파도의 거센 흐름을 막아준다. 이곳은 우도의 여느 다른 포구에 비해 수심이 매우 낮아 테우나 풍선(風船)과 같은 무동력 배들도 '사울대'나 '공쟁이대'를 장착해야 했다.

'사울대'는 5~7m가량의 길쭉한 나무다. 포구를 벗어나기 위해 밀려주고 키 대신 방향을 결정한다. 배에 따라 1~3개가 쓰이고, 삼나무를 많이 썼다. '공쟁이대'는 배의 앞부분에 30cm가량의 나무를 비스듬하게 덧붙여 장애물을 헤쳐 나갈 때 쓰는 도구다. 주로 대나무를 쓴다.

제주 섬을 대표하는 문화의 아이콘

지금 우리는 개발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이 원인이다. 사람들은 콘크리트에서 편의를 얻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는 자연과 대비되는 인공의 상징이다. 이 삭막한 구조물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잃고 있다. 제주도 내 포구도 마찬가지다. 크든 작든 모두가 개발 대상이었다.

어선 세(勢)가 쇠락하여 포구로서 쓰임새를 다했는데도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매년 준설작업을 했고, 방파제도 계속 확장됐다. 제주 선민들의 생산기술 문화유적으로서 포구의 가치를 조망할 틈도 없이 대부분 원형을 잃었다.

현재 그나마 옛 원형을 가늠할 수 있는 곳으로는 한림읍 귀덕 1리 '큰개', 남원읍 하례 1리 '망장포', 용담 2동 '다근개' 등 제주도 내 110여 개 항·포구 중 몇 안 된다. 보존과 개발은 대립적인 게 아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한림읍 귀덕 1리의 '큰개' 포구를 복



한림을 비양리의 앞개. 마을 앞에 자리 잡은 앞개는 '큰여'와 '너부여' 사이에 들어서 있다. 포구는 '안개'와 '밖개'로 돼 있다. '안개'가 본래 포구이고, '밖개'는 1950년대 후반에 축조된 것이다. 당시에는 그 흔한 손수레도 없었으며, 돌쟁이(석수)들이 돌을 깨면 마을 사람들이 일일이 등짐으로 날라다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칭(船塢)이라고도 한다. 지형적으로는 동남풍이 불면, 닻을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한다.

원하고 있다. '큰개'는 안개·중개·밖개로 축조돼 있다. 주변은 모래 바닥이어서 푸르다 못해 연초록에 더 가깝다. 포구 정면에 자리잡은 '큰여'의 거북이 등대는 포구의 운치를 더한다. 또한 갯당인 '할망당'의 위세는 대단하다. 인근 한림 오일장에서 돼지를 사고 지날 때면, 적어도 돼지머리 3개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돼지는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고 한다. 할망당 출입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어서, 염소[未]·소[丑]·개[戌] 날에만 허용된다. 이곳 보제기들은 지금도 아무 탈 없이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할망당의 영험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제주의 포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제주적이고,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포구는 척박한 자연 환경에 맞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자 했던 제주 선민들의 고난 극복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응축된 삶의 현장이다. 또한, 포구와 원담, 도곶불, 불턱, 용천수 터, 갯당, 바닷길, 고기밭, 소금밭, 방사탑...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풍경이지만, 이미 자연 속에 녹아서 동화돼버린 또 다른 자연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바닷가. 하얀 백사장과 흰 포말, 코발트블루와 에메랄드그린의 조화로운 물빛은 이국적인 정취에 맑고 청량하다. 이 여름 찬란하게 빛나는 투명한 바닷속으로 텃병 뛰어들고 싶게 한다.

샬섬이 보이는 서귀포시 보목동 바다. 제주의 바다색은 계절뿐만 아니라, 바다 바닥이 암반인 '갈바당'이나, 아니면 펄이나 모래가 깔린 '필바당'이냐에 따라서도 색을 달리한다.



제주의 물빛

사진 이일섭



성산일출봉의 바다, 바다 밑까지 투명하게 보여 하늘빛에 따라 그 색을 담아내는 그 바다는 이 세상 어느 보석보다 눈부시다.

제주에서 물빛이 가장 좋다는 협재·금능 바닷가. 뜨거운 태양 아래 투명한 에메랄드그린, 연옥 빛을 뿜내고 있다.



바다의 자연 그물 ‘원담’

“멜, 벙에돔, 따치, 솔치도 들었져”

글 김선희 (방송구성작가) 사진 이일섭

초가 마당에 사시사철 싱싱한 채소를 얻을 수 있는 텃밭인 ‘우영’이 있다면 해안 마을 바닷가에는 언제라도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해산물을 얻을 수 있는 ‘원담’이 있다.

매년 6~7월 제주 해안가에서는 ‘멜 들었져~’하는 고함소리를 종종 듣게 된다. 해안가에 있는 원담 안에 ‘멜’, 즉 손바닥만 한 길이의 멸치가 들어 온 것이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뜰채로 뜨거나 심지어는 감귤 콘테이너로 뜨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원담 안에 들어 온 멜이 많다는 얘기다. 이때가 되면 너도나도 원담 안으로 달려들어 바다가 준 선물을 건져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여름날의 행복한 순간이 이어진다.

썰물 때 제주 해안을 돌아 보면 해안가 인근 바다에서 둥그런 혹은 네모난 모양의 돌담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원담’이다. 원담은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고기를 잡았던 원시 어로 시설이다. 밀물 때 물살을 따라 해안가로 밀려온 고기들이 썰물이 되면서 빠져나가려다 돌담에 걸려 갇히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원담을 가리켜 ‘돌그물’이라 부르기도 한다. 제주 동부지역에서는 원담을 ‘개’ 혹은 ‘갯담’이라고 부른다.



조수간만 차를 이용한 어로시설

원담은 대부분 포구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이는 물 때에 맞춰 원담 안에 들어온 고기를 재빨리 잡기 위해서다. 지형에 따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주민들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 원담이 들어서는 지형적 환경을 살펴보면 코지, 즉 바다 밖으로 뻗어 나간 곳이 아닌 해안가 중에서도 바다가 육지 쪽으로 살짝 파고 들어가 만을 이루는 곳에 주로 자리한다.

원담 축조 방법을 보면 높이는 1~1.5m 정도로 쌓아 올렸고 원담 바깥쪽은 고기들이 원담 안으로 들어오기 쉽도록 비스듬하게 돌을 쌓아 올린 반면 원담 안쪽은 거의 수직 형태로 각지게 쌓아 올렸다. 이는 원담 안으로 들어온 고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방편이다. 척박한 자연을 개척하고 이용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인다. 또한, 원담의 맨 밑바닥에는 커다란 돌을 놓고 그 위로 갈수록 점점 크기가 작은 돌들을 얹은 후 돌담 사이 구멍은 돌맹이들로 막았다. 원담 안에는 작은 돌들을 깔기도 했는데 평지보다 조금 낮게 조성해 썰물 때에도 물이 고이도록 함으로써 원담 안에 갇힌 고기들이 죽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원담은 사실 제주만의 어로시설은 아니다. 다른 지방의 경우에도 '돌살', 혹은 '독살'이라고 부르는 돌그물이 존재한다. 어로 형태나 쌓는 방법은 제주 원담에서의 그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운영과 관리 면에서 볼 때 원담은 제주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다른 지방의 독살, 혹은 돌살이 철저하게 개인 소유로 운영 관리 되었다면 제주 원담은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契)를 만든 후 원담을 만들고 보수·관리한다. 관리는 대부분 파도나 태풍으로 인해 허물어진 원담을 다시 쌓는 것으로 주민들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담당했다.

원담은 동력선을 이용해 먼바다 고기잡이와 같은 현대식 어로 방법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온 전통어법이다. 오늘날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싹쓸이 어법이 아닌 자연이 주는 만큼만 거두는 생태 어법이자 자연 친화적인 어법이라고 볼 수 있다. 원담 안에 들어오는 고기 종류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멜', 매년 6, 7월이 되면 제주의 원담 안은 퍼덕이는 은빛 자태가 고운 멜들로 가득하다.





2

이렇게 원담 안에 멜이 가득한 것을 보고 제주 사람들은 ‘멜 들었다’고 한다. 이때가 되면 마을 주민 모두가 너도나도 원담으로 향한다. 어획 도구라고 해 봐야 뜰채 역할을 하는 족바지와 잡은 고기들을 담을 구덕이 전부다.

자연이 주는 만큼 걷는 생태어법

과거 원담 안에 멜이 많이 들어 올 때는 트럭 한 대분도 거뜰했다. 원담에서 걷어 들인 어획물은 마을 주민들끼리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이때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현장에 나오지 못한 이웃들에게도 원담에서 얻은 어획물을 일일이 나눠 준다. 또한, 나누다 남은 멜은 이웃 중산간 마을에 가지고 가서 팔기도 하고 그래도 남으면 밭에 뿌려 거름으로 활용했다. 멜 이외에도 원담에서는 농어, 뽕에돔, 따치, 솔치, 송어 등 다양한 종류의 어류와 오징어, 문어, 게, 오분자기 등의 해산물이 잡혔다. 원담은 오랜 시간 동안 제주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 온 해양공동체 문화의 산물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원담으로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무른원’을 꼽을 수 있다. 규모 면에서는 단연 제주 최고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60년 넘게 원담지기

를 자처해 온 올해 85세의 이방익 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방익 옹의 일과는 이른 새벽 원담을 둘러 보는 일로 시작된다. 이방익 옹이 원담지기가 된 것은 군대를 제대한 27살 무렵부터다. 군대를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원래 원담이 있던 자리가 거의 허물어져 있었다. 원담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던 이방익 옹은 옛 기억을 더듬어 원담을 다시 보수하기 시작했다. 원담 보수가 끝난 이후에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원담을 돌며 파도에 무너진 곳은 없는지를 확인했다. 60년 넘게 원담을 돌보며 생긴 추억들도 많아졌다. 그 날도 원담을 돌아보기 위해 이방익 옹은 바닷가로 나갔다. 원담을 둘러보던 중 원담 안에 갇힌 거북이를 발견했다. 썰물과 함께 원담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이방익 옹은 그 거북이를 꺼내 원담 밖으로 풀어줬다. 그해 7월, 원담 안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뱀이 들었다. 이방익 옹은 자신이 구해 준 거북이의 선물이라고 믿었다. 동화 같은 원담지기의 추억이다.

원담 문화 전해 줄 원담축제 주목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원담을 돌보겠다는 이방익 옹. 그에게 있어 원담과 바다는 평생을 바친 삶의 터전이다. 그는 원담이 사라지면서 거기에 얽힌 삶의 추억과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한다. 최근에는 그나마 원담 축제를 통해 후대들에게 원담 문화를 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위안을 얻는다. 금능원담축제는 제주의 대표적인 해양문화 축제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원담 쌓기 체험, 보말잡기 등 원담 생태 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제주의 해양문화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제주의 전통 어로시설이면서 옛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원담은 후대들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할 제주의 문화유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보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원담은 제주 해양문화의 진수를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기 때문이다.

1. 제주시 한림읍 금능읍원해변에 있는 '무른원' 2. 원담 할아버지 이방익 옹 3. 바깥쪽을 길게 완만하게 쌓아 올린 원담 4.5. 이방익 옹이 바닷가로 밀려온 쓰레기를 주워 직접 만든 테왁과 바구니



민간이 축조한 밤바다 지킴이

제주도 ‘도대’를 아십니까?

글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사진 이일섭

‘갈 같은 돌(劍石)’과 ‘암초(暗礁)와 여(嶼 수중암초)’로 둘러싸인 화산섬 제주도의 해안은 예로부터 뱃길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면 노를 저을 엄두가 나지 않던 곳이다. 그래서 옛 제주 뱃사람들의 아낙들은 비바람이라도 부는 밤이면 횃불을 들고 지아비를 마중 나가곤 하였다. 그렇게 포구의 아낙네들이 불 밝히던 횃불을 ‘갯불’이라 불렀다 한다.

전깃불이 없던 시절, 제주 해안마을에는 이러한 갯불과 함께 언제부터인가 ‘도대’ 또는 ‘도댓불’이라 불리던 옛 등대가 포구 곳곳에 196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축조되었다. 이러한 도대가 근래에 와서 제주의 근대 해양문화 유산이라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 어원을 비롯하여 처음 축조된 유래에 대해 사실이 아닌 억측만이 난무하다.

1. 북촌리 도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포구, 속칭 ‘안뽕구들’ 위에 세워진 도대로 기록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애월리 도대

애월포의 기억을 가진 주민들의 열정으로 2003년 11월 사다리꼴 형태로 새롭게 축조된 도대. 옛 모습과 다른 게 아쉽지만 애월리 주민들은 소중한 마을 유산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제주도 도대는 언제 처음 축조되었을까? 지금까지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포구, 속칭 '안백구들' 위에 세워진 도대가 기록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일반에 알려져 있다. 북촌리에 도대가 세워진 것은 제주시 건입동에 산지등대가 세워지기 했수로 1년 전의 일이다. 판잣집 위에 나무기둥을 달고 도르래를 이용해서 그 위에 등을 걸고 내렸던 이른바

등간(燈竿)의 모습으로 세워졌다. 제주도 제1호 등대인 우도등대가 세워진 1906년 이후 그 마을 어민들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등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촌리 도대의 유래는 그 네모난 상자 모양의 몸체 위에 세워진 높이 57cm, 너비 27cm의 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기의 기념비 비문에 새겨진 문장



御即[位][記][念]燈明臺 大正四年十月建(設)	×××[記][念]燈明臺 ××××[十]貳月建設	[御][即][位][記][念]燈(明)臺 [大][正][四][年]十月建(設)
북촌리 기념비 높이 57, 너비 27, 두께 10~12cm	도두동 기념비편 높이 48, 너비 32~35, 두께 12cm	삼양동 기념비 높이 54, 너비 27~29, 두께 17cm

※ []는 추정편독, ()는 매물, ×는 파손된 글자.

도대의 축조를 기념하여 세운 기념비는 북촌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필자는 2009년 제주시 도두동 기념비를 확인했고, 2012년 삼양동 기념비를 발견했다. 북촌리를 제외한 도두동과 삼양동 포구에 세워졌던 도대의 몸체는 사라져 버렸지만, 비석이 남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들 기념비 비문에 새겨진 문장의 형식과 내용이 같다. 세 비석에 새겨진 비문을 종합하면, 문장은 동일하게 '御即位記念 燈明臺 大正四年 十二月 建設'로 새겨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御即位(어즉위)'는 천황 곧, 일본 왕의 즉위를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로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일본식 한자어이다.

따라서 비문은 '일본 왕의 즉위를 기념하여 등명대를 대정 4년(1915) 12월에 세웠다'고 풀이된다. 대정 원년은 서기 1912년이며, 당시 일본의 왕 타이쇼(大正)는 선왕인 메이지(明治)의 사망 후 3년이 지난 후인 대정 4년(1915)이 되어 서야 교토의 궁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

필자는 도두동의 기념비를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북촌리 도대의 본디 이름은 도대가 아니라 '등명대'였다. 예전에 없던 것이 만들어지자 주민들이 마을의 유식한 이를 찾아가 작명을 부탁했을 터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한자어인 등명(燈明)에다 대(臺)를 합하여 그 쓰임새에 맞게 이름을 붙인 것일 것이다. 짧은 기간이라도 등명대로 불리다가 이후 일본의 강압적인 우리말 말살정책으로 등명대라는 이름이 일본식 신조어인 '도우다이(燈臺)' 곧 '도대'로 불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속의 간절한 바람은 삼양동의 비가 확인되면서 공허한 사실이 되어버렸다. 어떤 이는 이러한 나의 결론에 '위험한 발상'이라 일갈하였다. 축조방식이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고... 그 심정을 이해한다. 필자 또한 간절한 바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씁쓸함을 깊게 맛보았었으니까. 하지만 인정해야 할 것은 빨리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발적 점차적으로 해안마을로 확산

제주도의 도대, 그 처음이 비록 일본의 행정적 관여 때문에 축조되었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이후 제주의 도대는 마을 주민 전체 혹은 일부 어부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해안마을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필자가 현재까지 조사한 제주도 해안마을에 축조되었었거나 남아있는 도대는 모두 27기로 추정된다.

축조 연대를 알 수 있는 도대는 1915년의 위 3기를 시작으로, 1920년대 안덕면 대평리, 1930년대 한경면 두모리·한림읍 귀덕리·애월읍 애월리·서귀포시 보목동, 1940년대 한경면 고산리·조천읍 신촌리·서귀포시 대포동, 1950년대 제주시 용담동, 1960년대 한경면 판포리·한림읍 금능리·구좌읍 김녕리·애월읍 구엄리·구좌읍 하도리·우도면 조일리, 1970년대 애월읍 하귀리 도대로 모두 19기이다. 이외에 애월읍 신엄리·제주시 외도동·제주시 용담동·제주시 화북동·조천읍 조천리·구좌읍 행원리·성산읍 온평리·서귀포시 강정동 도대 8기는 연대를 알 수 없다.





1. 한경면 고산리 도대 2. 서귀포시 대포동 도대 3. 서귀포시 보목동 도대 (사진 1~3 © 백종진) 4. 김녕리 도대

여하튼 제주도의 도대는 어느 순간 일시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속적으로 축조되어졌다.

마을 주민 모두 동원된 마을 공동 소유물

처음 도대가 세워진 이후 선진 어구(漁具) 및 기술로 개량된 마을 어민들의 야간 조업활동을 위한 이정표로서 도대의 소용은 마을주민이나 어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한 도대가 마을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졌는지는 다음 구술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금의 도댓불은 리민전체가 대정4년(1915)에 쌓은 것이다. 당시 도댓불을 쌓고 이장이 하인을 시켜서 저녁에는 불을 켜고 날이 밝으면 불을 껐다. 초기에 불을 담당했던 하인은 함○○라는 이장집 하인이었다. 당시 북촌리에는 풍선이 7~8척 있었고 밤에 갈치 조업을 나가면 새벽 3~4시에 귀항했다. 1년 내내 켜었던 것은 아니고 고깃배가 나갈 때만 불을 밝혔다.”

- 김근식 (1909년생, 조천읍 북촌리), 2008. 8. 29 증언.

도대를 쌓는데 마을주민 모두가 동원되었고, 이후 등화의 관리를 마을 이장이 주관하였다는 것은 도대가 마을공동의 소유물로 소중하게 여겨졌음을 의미한다.

초기 행정적 관여에 의해 세워진 도대가 이후 해안마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축조되었음을 추정케 하는 증언 자료로는 구좌읍 김녕리의 경우 해방 이후 해녀탈의장을 만들기 위해 처음 있었던 도대를 허물었다가 다시 마을에서 북제주군의 보조를 받아 축조한 경우가 있고, 구엄리인 경우 어민들이 방사탑형으로 있던 것을 1960년대 시멘트와 철탑형으로 만든 경우, 1968년에 태풍에 무너진 포구를 다시 고쳐 쌓으면서 재축조한 삼양동 등의 예가 있다.

결국 1915년 북촌리와 도두동, 삼양동 등지에 최초의 도대

가 출현한 이래 그 다음 생겨나는 도대는 대부분 어로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해안마을의 주민과 어부들에 의해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와 암초를 피하여 칠혹 같은 어두운 밤바다에서 안전하게 포구로 돌아오는 데에 문명의 이기(利器)가 피워내는 한 조각 불빛은 옛 제주의 뱃사람들에게는 분명 생명의 불빛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도대의 형태는 북촌리와 신엄리의 상자형, 도두동과 조일리의 방사탑형, 대평리의 표주박형, 두모리와 애월리, 용담동의 사각뿔대형, 귀덕리의 원통형, 보목동과 고산리의 첨성대형 등 1950년대까지 제주 전역에 확산되면서 각각 주변에서 유통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축조되다가 1960년대에 와서 한림읍 금능리, 애월읍 구엄리, 애월읍 하귀리, 구좌읍 하도리 등의 경우처럼 규격화되는 모습으로 바뀌거나 새롭게 생겨난다. 곧, 도대의 기단을 현무암과 시멘트로 처리하고 그 위에 사각 또는 삼각의 철탑을 세우고 호롱불이나 남포등을 매다는 형태로 규격화되는데, 이는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시멘트와 철근의 보급이 수월해져서 기단을 높이 돌로 쌓는 수고로움을 철로 된 골격이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도 잠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을 맞이하고 새마을운동이 펼쳐지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해안마을의 포구와 연안에서 역사의 한 자리를 지키고 섰던 도대는 1970년대 제주도에 전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그 생명을 다하고 처음 세워질 때처럼 하나둘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현재 조성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고산리·북촌리·김녕리·조일리·보목동·대포동 등 6기에 불과하다.



제주도 여름 환상해변

글 편집부 그림 고을



용담2동
다문개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시내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다. 야간개장으로 밤 정취를 즐기기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
축제: 이호테우축제 (7. 29.~31.)
문의: 064-728-4931 (이호동사무소)
야간개장: 10:00~21:00 (7.16.~ 8.15.)

상귀리 소영물

애월



한담

과거과물해변

넓은 백사장과 맑고 푸른 물이 특징. 용천수 노천탕이 있어 무더운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낄 만큼 물이 차다.
문의: 064-728-8884 (애월읍사무소)
이용시간: 10:00~19:00

귀덕2리 진질개

귀덕1리 큰개

비양도

한림

협재해변

맑고 투명한 물, 흰 모래와 조가비 백사장. 낙조가 환상적. 안바다에는 비양도가 그림같이 떠 있다.
문의: 064-728-7676 (한림읍사무소)
야간개장: 10:00 ~ 21:00 (7.16.~ 8.15.)

월령리

월령축항

판포리

엄수개

금능으뜸안해변

협재해변과 이어져 있고 눈앞에 비양도가 바라다 보인다. 전통 어로 시설인 원담을 볼 수 있다.
축제: 금능원담축제 (7. 30.~31.)
문의: 064-728-7676 (한림읍사무소)
이용시간: 10:00~19:00

고산리 도대

고산

중문색달해변

네 가지 색을 띤 모래와 제주도 특유의 검은 돌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중문관광단지내 속해 있어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문의: 064-760-4861 (예래동사무소)
야간개장: 10:00~21:00

화순금모래해변

비닷가에서 샘솟는 용천수가 있어 야외 수영장에서 담수욕을 즐길 수 있는 해변.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해양레저체험 또한 다양하다.
문의: 064-760-4373 (안덕면사무소)
이용시간: 10:00~19:00

중문

서귀포시

대포동 도대

법안동
막속

대정



가파도

마라도



삼양검은모래해변

여름철 검은 모래찜질(제주어 '모살뜸')을 하는
사람들로 장관을 이룬다.
축제: 삼양검은모래 해변축제 (7.29.~30.)
문의: 064-728-8174 (삼양동사무소)
아간개장: 10:00~21:00 (7.16.~8.15.)

함덕서우봉해변

이국적인 해안선,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여
아이들과 함께 해수욕하기에 적합하다.
문의: 064-728-7882(조천읍사무소)
아간개장: 10:00~21:00 (7.16.~8.15.)

김녕성세기해변

코발트 빛 바다와 고운 모래는 김녕해수욕장의
자랑으로, 찾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문의: 064-728-7783 (구좌읍사무소)
이용시간: 10:00~21:00

구좌

세화해수욕장

하도리 만개창

하도해수욕장

우도

하고수동해수욕장

서빈백사

신양섬지코지해변

해변의 동쪽 부분을 섬지코지가 감싸고 있어
내륙의 호수처럼 편안한 느낌을 준다.
문의: 064-760-4282 (성산읍사무소)
이용시간: 10:00~21:00

성산

표선해비치해변

원형의 백사장을 가진 해변은 폭이 313m로 도내에서
가장 폭이 넓고 완만한 경사를 가진다.
축제: 표선해비치해변 하안모래축제(7.30.~31.)
문의: 064-760-4476 (표선면사무소)
이용시간: 10:00~21:00

토산1리 거스새미

표선

남원

태릉2리 관선포

**하효소1소각
해수욕장**

위미1리 앞개

신례리 공천포

하례1리 망장포

송산동
수전포

보목동 도대

포구

산물(물전수)

도대

*본 매체에 거론된 곳
위주로 표기함.

팔색조 제주도의 바다 뜨거운 태양, 선선한 바람 그 청량한 해변으로~~

사진제공 제주관광공사



금능으뜸원해변



김녕성세기해변

김녕성세기 해변은 밀가루처럼 희고 고운 백사장,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넓은 해변을 혼자 즐기기에 최적이다. 해안선 한쪽엔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고요한 바다를 떠다니는 요트들이 있어 이국적인 정취가 가득하다.



© 이한구





이호테우해변



곽지과물해변




함덕서우봉해변



신양섬지코지해변

여름엔 역시 수상 스포츠!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서핑, 카누 등을 즐길 수 있는 해변이 여럿 있다. 그중 중문색달해변과 신양섬지코지해변이 대표적이다. 중문은 서퍼들이 모여들고 섬지코지엔 바람 좋은 날이면 윈드서핑을 하는 이들이 찾는다. 해변에서는 장비를 대여하거나 강습을 해주는 곳이 있으니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





협재해변



삼양검은모래해변

함덕서우봉해변과 협재해변
제주도 대표 해변으로 함덕은 동쪽, 협재는 서쪽에 자리해 자연스럽게 제주의 동서를 대표하는 해변이 되었다. 둘 다 맑고 깨끗한 바다와 넓은 백사장, 아름다운 풍경, 잘 갖춰진 부대시설로 편리하다. 성수기에는 야간 개장과 더불어 다양한 축제도 열린다.

섬 속의 섬, 우도 비경
서빈백사 홍조단괴해빈과 하고수동해수욕장.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홍조단괴해빈은 고운 백사장과 달리 굽직하게 밟히는 홍조류가 신기한 해변이다.
옥빛 바다를 배경으로 해녀 동상이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하고수동해수욕장은 홍조단괴해빈과 달리 모래가 무척 곱다.




우도 하고수동해수욕장

제주산물, 그 의미와 가치

마을을 만들어 낸 삶의 원동력

글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지의 척도는 물이 좌우한다. 물이 있으면 유인도지만 없으면 무인도다. 지질적으로 화산암으로 뒤덮인 제주 섬은 물이 귀하다. 섬의 삶은 물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물로 인해 불모의 자연과 역사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제주 섬의 식수로 봉천수를 말한다. 지형적으로 물이 땅속에 숨어버려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인해 하늘의 물인 천수(天水)라는 빗물을 향아리에 귀하게 담아 써야 했다. 이러한 봉천수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눈물을 닦아주고 돌봐준 하늘의 기운을 가진 물이지만 삶을 지탱하는데 있어 가뭄이란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제주 섬 전역에서 솟아나는 용출수인 제주산물을 찾아 산에서 해안가로 이주하게 되고 설문대할망과 영등할망을 창조하고 단혈(斷穴)설화를 만든 것이다.

섬의 창조신인 설문대할망과 관련하여 조천 신흥리 바닷가에는 육지로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전설이 깃든 큰 물이 있다. 이 산물은 여자전용으로 여즈물(여자의 제주어)이라고 하여 신흥리의 설촌 배경이 되고 마을의 중요한 식수 원으로써 귀한 생명수의 역할을 하였는데 아쉽게도 일부 개조되어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 검은 모래사장에서 용출하는 영등할망물이 있다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는 영등물당 서쪽에 영등하르방물이 있다. 이들 산물은 당 신앙을 만든 성스러운 물로 음력 2월 영등달에 영등제(영등굿)라는 축제의 장을 만든다. 보름 동안 섬 전체를 신명 나게 만들어 준 물로 섬의 화합 차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 산물을 통해 해산물이나 농작물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풍농신 영등할망과 하르방이 이 물을 통해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한다.

1. 수량이 풍부한 애월읍 유수암리 유수암천
2. 설문대할망의 전설이 깃든 조천읍 신흥리 여즈물





1. 마을을 이주하게 한 조천읍 신촌리 큰물
2. 표선면 토산1리 마을회에서 복원한 거순새미
3. 조천읍 조천리 지리물



구좌읍 종달리 중산간인 은월봉 북측에는 호종단이 단혈로 수맥이 사라졌다는 물징거란 지명이 남아 있다. 물이 사라지자 해안가로 마을을 옮겨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주 해안 전역에서 용출되는 제주산물의 의미와 가치는 제주사람들의 생명수다. 이처럼 생명수를 찾아 사람들이 이주한 경우는 제주 섬 곳곳에 지명으로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천읍 신촌의 큰물이다. 신촌(新村)은 물을 찾아 해안가로 집단으로 이주하여 새롭게 마을을 만들었다고 해서 신촌인 것이다. 물과 마을의 지명은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산물은 곧 설촌의 역사가 되었다.

불리한 자연 환경의 극복 과정

샘을 제주어로 '산물'이라고 하며 살아있는 물 혹은 산(한라산)에서 내린 물이란 의미로 물이 솟는 샘을 지칭한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세미, 새미, 샘미, 샘이 등으로 통용되기도 하며, 학술용어로는 용천이라 쓰며 일부에서는 용천수, 용출수라고 쓰기도 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바닷물과 같이 짜지 않다는 의미에서 단물(단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섬'이란 독특한 명칭을 사용하는데, 밀물(만조)시 물통이 섬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제주의 어느 마을을 가도 물에 대한 애환이 있고 물의 전설을 품고 있으며, 물에 얽힌 지명이 남아 있다. 심지어는 마을 이름이 물과 관련되어 붙여진 것처럼 제주 섬에서의 식수의 해결은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삶의 지혜다. 물의 사용은 환경친화적이고 과학적이다. 그 방식은 먹는 물통, 음식물 씻는 통, 빨래하는 통, 먹 감는 통, 기저귀를 빨거나 마소 등이 물을 마시는 통으로 같은 물이라도 위치에 따른 위계를 정하여 사용했다. 관리하는 방법도 마을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엄격하게 지켜왔다. 삼양1동에 자리한 큰물, 셋드리물(셋다리물)은 용출되는 수량도 많고 지금도 위계를 지키며 잘 사용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제주산물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 보전과 이용에 대한 연대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역개발 혹은 상수도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면서 점차 산물은 단순한 물웅덩이 정도로 취급받는 세태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일부 마을에서는 스스로 설촌의 역사를 보전하고 주민들이 생명수 역할을 했던 산물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표선 토산리 거순새미이다. 이 산물은 토산망로름 자락에서 한라산 쪽으로 거슬러 흐르는



역천수라서 거센새미라 하고 있다. 호종단이 물혈을 끊으려 했던 단혈전설이 전해지는 물로 전설에 의하면 종달리에서 토산리까지는 호종단이 물혈을 모두 떠버려서 산물이 솟는 곳이 없는데 한라산 수호신의 보호로 물혈을 뜨지 못하여 용출되고 있다고 하는 물이다. 예전에는 이 물을 이용해서 토산에서 유일하게 논농사도 지었는데, 한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오다가 산물 신인 영천수신(靈泉水神)을 기리기 위해 토산1리 마을회에서 복원하여 유원지를 조성해 놓았다. 그러나 지금 애석하게도 많은 산물들이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지거나 잊혀 가고 있다. 이런 현실은 제주산물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마저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 산물(용천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늦었지만 제주산물의 보전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물통 주변은 의사소통의 쉼터

물허벅에 물을 길거나 빨래나 목욕을 하고, 소와 말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모습은 1970년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물’을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환경 요인이며 제주의 독특한 물 이용 문화가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 ‘산물’로 인해 [물허벅], [물구덕], [물팡], [물항(춤)], [물막개], [물부조], [물맛이] 등 심지어는 시집살이하는 아낙네들의 고된 노동의 피로를 물허벅 장단에 맞춰 노래가 되어 풀어내기도 했다. 산물이 있는 물통 주변은 마을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알리는 의사소통의 쉼터가 되었다. 또한 마을마다 크고 작은 산물들은 저마다 마을을 대변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기들이 사는 마을이 물이 좋고 크다는 의미로 큰 혹은 대(大), 명(明) 등을 붙여 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산물이 복원하거나 보전한다면서 현대적 디자인이나 손쉬운 관리가 우선 되어 고증 없이 옛 모습을 경시하거나 근거 없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해안을 따라 환상(環狀)의 띠 형태로 마을을 만들어낸 삶의 원동력인 산물을 보전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을마다 독특한 ‘물’ 문화의 보전에 대한 주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문사회 및 공학적 학술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제주산물의 유형별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역사·문화·생태적 특성이 높은 산물은 기



1. 삼양1동 셋다리물 © 이일섭
2. 애월읍 상귀리 소영물

념물로 지정해야 한다. 산물 관련 전통문화 및 역사의 재발견에 의한 섬의 생명수 홍보 및 관광화를 위한 관광 클러스터 [돌+제주어+해녀+물]의 복합적 문화 구축에 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치 증대를 위해 각종 탐방코스과 연계한 탐방 및 체험 강화를 통한 차세대의 설촌 역사의 물 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부여해야 한다.

제주속담에 “물질광 물론 안 막나(물길과 물꼬는 안 막는다)”라고 했듯이 제주인의 생명의 근원이며 삶의 역사를 간직한 산물의 옛 모습을 하루 빨리 되찾길 바란다. 되찾은 산물은 지역주민과 제주를 찾는 여행객에게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산도록(시원하다는 뜻의 제주어)하게 샘솟는 ‘삶의 이야기’를 만나는 공간이 될 것이다.

한라산 백록담의 원천인 사철 마르지 않는, 하늘로 통하는 산물은 용솨음치듯 솨아나는 용의 기운을 가진 천상의 샘으로써 제주만이 갖는 수심(水心)·암심(岩心)·지심(地心)·청심(淸心淸水)이다.

발트해의 예술인이 본 제주
“제주바다는 내 가치관을 오롯이 바꾼 선물”

글·그림 아그네 라티니테 (일러스트레이터)



수탉을 닮은 해녀

“바다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지.” 내가 그동안 만났던 해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해준 말이다. 그분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해녀 일을 해왔다고 했다. 20대가 된 그분은 해녀 일을 그만두고 육지로 올라가서 일자리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육지 사람들이 외모, 브랜드, 배경, 직위, 연봉, 연줄 같은 비교적 하찮은 것들에 얽매어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결국 그분은 각박한 육지를 떠나 외모도, 배경도, 옷차림도, 출신대학도 가리지 않는, 그분의 말마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바다로 돌아왔다고 한다. 바다는 그 품 안에 있는 사람을 감싸고, 그 찰나의 숨, 생존기술, 그 순간의 의식만을 직시하는 곳이다.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은 가면을



호랑이를 닮은 해녀

버리고 진실된 대화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다. 거짓된 껍질을 버리고 진실된 낯을 보일 때 바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감싼다.

나는 사실 바다를 좋아하는 적이 없었다.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태어나 자란 나에게 바다란 찝뚱같이 무더운 차 안에서 휘발유 냄새를 맡으며 간 자그마한 바닷가 휴양지였으며, 300km에 달하는 거리를 차로 달리는 동안 나는 심한 멀미를 두어 번 앓곤 했다. 친구들이 바다를 찾아 해안가로 이사를 할 때도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때의 나에게 바다는 차갑고 축축한 바닷바람에 섞이는 쿡쿡한 비린내와 어둡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해안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바닷가 생활 3년 차에 들어선 지금, 나는 신기하게도 평생 바닷가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어느새 하게 되었다.

나에게 제주도의 첫인상은 내가 꿈에 그리던 공간, 즉 나만의 낙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인상은 변하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소름기어린 상쾌한 바닷바람이 나를 반기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바람은 제주도의 바다에서 부는 바닷바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주도의 사람들은 역센 바람에 생긴 주름까지도 항상 웃는 것처럼 보이는, 선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평생 미식가를 자칭한 적도, 해물을 즐긴 적도 없지만 지금은 식탁 한 칸에 바다에서 온 요리들을 놓아야 마음이 풀린다. 이곳 생활 3년 차에 내 모국어보다 한국어로 오징어의 종류를 더 많이 말할 수 있다는 사실도 신기하게 느껴진다.

비록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풍광을 찾아 제주도로 온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나도 바다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노란 모래와 검은 바위들 사이에 펼쳐진 파란 공간과 저 멀리 하늘이 만나는 선을 그리려는 시도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바다는 에메랄드빛 비취색부터 어두운 쪽빛까지 다양한 빛깔을 보여주며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후 조금씩 조금씩 포스터 디자인이나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릴 때에도 해변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다음에는 제주의 바다를 더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해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해녀들은 나에게 가족과 생존을 위해 자연에 맞서는 강한 여성상 외에도 내가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었다. 언젠가는 지역 문화와 역사에 집중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건의하기 위해 유치원 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었다. 그 수업에서 나는 구별도 하지 못하는 물고기들의 이름을 척척 맞히는 아이들을 보며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나는 오름의 봉우리에서 본 풍경보다 더 깊고 넓은 삶의 모습이 제주도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안 것 같다.

내 주변의 새로운 것을 더 잘 알고 싶어서 나는 다이빙을 시작하였다. 나는 물에 들어갈 때의 경험과 풍경을 오롯이 기억 속에 보관하여 캔버스 위에서 재창조하기 위해 물속에 카메라를 들고 가지 않는다. 물에 들어가면 나는 한 마리의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바닷속 세상의 수많은 색과 모양과 질감 속에서 헤엄치다 보면 바닷속 세상이 육지와 이렇게 다르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에 놀랄 때가 있다 (어쩌면 매일 보는 아름다움에 그저 익숙해져 버린 것일 수도 있지만). 제주의 바다를 보면, 새로운 작품에 이런 경험들을 녹여 낼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내 가치관을 오롯이 바꾼 경험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에 감사한다.

아그네 라티니테

리투아니아 빌뉴스미술대학교(Vilnius Academy of Arts) 시각·응용예술학과 졸업. 삽화 및 혼합미디어 예술 전공. 현재 제주도에 정착하여 다양한 전시와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제주대학원에서 시각융합디자인학을 공부하고 있다.

바다와 함께 한 제주해녀의 삶

글 유철인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예전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제주해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수영선수, 수중발레 한국대표 선수 등 세 명이 출연하였다.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오래 버티기 시합을 하였는데, 과연 누가 이겼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물론 제주해녀들까지도 제주해녀가 가장 오래 숨을 참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해녀는 약 1분 만에,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물속에서 나왔다.

잠수 시간은 해녀의 중요한 능력이 아니다. 반복적인 물질 작업의 결과로 언제 물 위로 떠올라야 할 수 있는지 해녀의 몸은 스스로 알고 있다. 물질은 숨을 참고 바다 깊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한번 잠수한 후 해녀가 바다 위로 올라와 가쁜 숨을 내쉴 때 내는 소리를 숨비소리라고 한다. 물질은 삶과 죽음이 찰나에 갈라지는 일이므로, 해녀들은 물밑에서 오래 머물면서 많이 채취하겠다는 욕심을 절대 부리지 말아야 한다.

물질은 하루아침에 터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물질 솜씨는 오랜 경험이 키워주는 것이다. 폐활량이나 찬물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신체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을 통해 몸으로 배운 것이다. 제주해녀들은 물때, 바람, 바닷속의 여(수중암초), 채취하는 해산물의 서식처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날씨에 따라 물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기 예보보다는 물질경력이 오래된 상군해녀의 말에 따른다.

물질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이다. 많이 채취하겠다는 해녀 개인의 욕심은 물속에서 숨을 참는 능력으로 조절된다. 마을 어른께는 채취기와 금채기, 작업시간, 채취물의 크기 등을 정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해녀들은 바닷속을 바다밭으로 인식하여, 1년에 두세 번 해안가와 조간대에서 공동으로 잡초를 제거한다. 소라나 전복의 종묘를 마을어장에 뿌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제주해녀의 의무사항의 하나이다. 제주해녀는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잘 보여준다.

물질작업에서는 협동이 중요하다. 동료는 경쟁자이지만 물속에서 닥칠 위험을 상호 예방하는 보호막 구실을 한다. 제주해녀들은 서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물질을 한다. 제주해녀들의 속담에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라는 말이 있다. 물질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속담이다. 제주해녀들은 매해 봄이 되면 바다의 여신인 요왕할머니(용왕할머니)에게 바다에서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무속의례인 잠수 굿을 지낸다. 제주해녀 어업은 2015년 12월 말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물질 작업방식과 그에 따른 문화, 그리고 물질의 지속가능성과 해녀의 가치를 지키려는 지자체의 정책추진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 올해 11월말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제주해녀 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여부가 결정된다.

제주해녀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70대 이상의 나이든 해녀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제주해녀 문화를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해녀 문화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표목록 등재는 여러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새로운 제주해녀가 계속 등장하여 자연친화적인 물질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물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제주해녀들 스스로가 하루 작업시간과 연간 물질작업 기간을 축소하고,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제주해녀 보존과 전승

인류 유산 ‘제주해녀’는 제주의 정신

글 김순이 (제주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이한구

올해 우리나라는 제주해녀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은 인류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받을 때 지정된다. 제주해녀가 지정된다면 이는 여성이 이룩한 문화로서는 세계최초로 등재되는 것으로 온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됨은 물론이다.

제주 여성이 이룩한 인류의 문화유산

한때 해녀는 잠수 일을 할 때면 분명 해녀복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벌거숭이 상태로 일하는 것처럼 ‘불보제기’라며 팔시와 천시를 받았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눈에는 해녀복은 옷도 아니었던 것이다. 바다 깊이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선 물의 저항을 최소화해주는 뛰어난 기능복은 필수장비였다. 그때는 그랬다 치고, 현재도 해양관련 통계에는 해녀라는 용어보다 말가벗고 잠수하는 업자라는 뜻을 가진 나잠업자(裸潛業者)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시바삐 바로잡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녀가 언제부터 제주 바다에서 활동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해녀 연구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 선사 유적에서는 어김없이 다량의 커다란 전복껍데기가 나온다. 전복은 수심 5m 이상에서만 서식한다. 썰물에 드러나는 갯가에서는 잡을 수 없는 해산물이다. 그러므로 이를 채취하기 위한 잠수를 선사시대 사람들도 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제주해녀는 한겨울에도 수심 20m까지 잠수하는 강인한 체력을 지녔다. 스쿠버다이빙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단숨에 바다 밑에 이르기 위해 수압조절도 없이 잠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몸에 충격을 주는 일인지. 그뿐인가, 해산물을 채취하고선 턱까지 차오른 숨을 비우려고 일렁이는 두꺼운 초록빛 유리 벽을 단숨에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리며 올라와야 한다. 해녀들은 한번 바다에 들어가면 100~200번을 잠수한다. 해산물을 채취할 욕심에 수압으로 생긴 초록빛 물벽을 들이받을 때마다 받는 충격이 쌓여 잠수병이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 전 지역은 물론 일본 중국 소련까지도 행동반경을 넓혀 벌어들인 돈은 한때 제주경제의 활력소였다. 밭과 집을 사서 가정경제를 일으켰으며 처녀들은 혼수 비용도 자신이 마련했다. 자립심과 경제력은 제주해녀가 갖춘 기본역량이었다.

불턱은 지식전달과 상담의 장소

이렇듯 제주해녀가 지닌 강인한 체력, 악착같은 경제력, 남자에게 기대지 않는 자립심도 남다르지만 세계의 무형유산에 지정될만한 값어치를 가진 제주해녀의 빛나는 덕목은 공동체 정신에 있다. 불턱은 공동체 정신의 산실이었다.

열다섯 살이 되면 해안가에 사는 여자아이는 성인으로 인정받아 해녀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간다. 그때부터 해녀들이 작업하고 올라와 불을 쬐며 휴식하는 불턱에도 끼어서 곁불도 쬐며 어른들의 대화를 얻어들어 가며 바다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간다. 해녀들의 위계질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곳이 '불턱'이다. 불턱은 해녀들이 물에서 작업하고 올라와 불을 쬐던 휴식처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우묵진 바위 그늘이나 돌담을 둥글게 두른 곳으로 중심에는 모닥불을 피웠다. 현대식 샤워시설을 갖춘 탈의장이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 불턱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불턱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날의 바람 방향에 따라 연기와 불티가 날아들지 않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이며 이곳이 대상군의 자리라 하겠다. 대상군을 중심으로 좌우에 상군이 앉고 중군과 하군이 자리 잡는다. 해녀가 많은 마을에서는 아예 따로 상불턱, 중불턱, 하불턱을 만들기도 한다. 불턱은 해녀공동체의 정보센터이며 여론의 집합지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와 인성이 검증되며 도덕성과 리더십 자질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된다.

바다에서 먼저 올라와 불을 피우는 사람이 추위를 유난히 타는 해녀일 수도 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다른 사람보다 한발 앞서 작업을 끝내고 와 불을 피워놓고 무거운 짐을 받아주는 그런 속 깊은 해녀가 있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이익에 잔머리를 굴리며 탐욕적인 근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해녀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행동은 개인적인 기량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중요 결정에서는 말의 씨알이 먹혀들지 않게 마련이며 위계질서에서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흠이 된다.

불턱은 해녀들에게 있어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전달의 장소이며 삶의 애환을 풀어놓는 상담의 장소이기도 하고 해녀공동체의 진로에 대한 논의의 장소이기도 하며 마을에 떠도는 소문이 모여드는 정보교환의 장소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대상군을 비롯한 상군, 중군, 하군 해녀들의 위계질서와 그에 따른 의무와 도리를 배우고 익혀나가는 동안 한사람 뉘를 하는 어엿한 해녀로 성장하는 것이다.

해녀들의 휴식처였던 불턱 © 해녀박물관





사랑과 헌신이 자리한 아름다운 전통

오래전부터 제주해녀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전통을 지켜왔다. 65세 이상의 늙은 해녀들을 위한 바다 구역 설정하여 그들이 노후에도 바다에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배려했다. 대정읍 마라도의 향약에도 나와 있는 '할망바당'이야말로 해녀복지의 한 사례이다. 성산읍 온평리에는 '학교바당'이 있었다. 1950년 온평초등학교의 교실들이 화재로 전소됐을 때, 이 마을 해녀들은 가장 해산물이 풍부한 바다의 한 구역을 지정하여 거기서 나오는 해산물 판매대금을 교실 짓기에 기부했다. 이 기부는 교실이 모두 재건되는 10여 년 동안 계속됐다.

성산읍 오조리도 학교바당에서 채취한 해산물 판매대금을 학교에 기부해 학생들의 기성회비 납부는 물론 커튼 등의 환경 시설에도 도움을 줬다. 1950년대 한림읍 협재리 해녀 23명은 독도까지 가서 해산물 채취로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를 마을을 위해 쾌척했다. 그를 기리는 비석이 협재리 복지회관에

서 있다. 구좌읍 김녕리 해녀들은 본향당 정비와 관리에 기여이 돈을 내놨다.

제주 바다에는 크고 작은 태풍이 일 년에 수십 차례 지나간다. 이런 큰바람이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다. '풍조(風藻)'라는 보너스를 가져온다. 풍조란 태풍이 불고 난 후 파도에 밀려온 해조류를 말한다. 주로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바닷가에 밀려온다. 햇볕에 말려서 팔면 썩 괜찮은 용돈이 된다. 마을마다 해녀들의 합의에 따라 처리방법이 결정된다. 대부분은 바다의 선물이나 다름없는 이 풍조 채취권을 65세 이상의 할망해녀들에게 주어 그들의 부수입을 보태주고 있다.

이 밖에도 해녀들은 해산물 채취의 일정 기금을 각출, 공동기금을 조성해두고 상부상조는 물론 경로당, 복지회관, 학교운동회 등 마을 전체의 복지에 대한 기부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듯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베푸는 아름답고 따스한 전통이 제주해녀들에게는 면면히 내려오고 있다.

친정집보다 고마운 바다, 그러나 무서운 바다

해녀들은 한 달에 약 15일간 물질을 한다. 물때가 좋은 일주일 일을 연이어 일한 후 약 8일간 쉬고 다시 일주일 정도 물에 든다. 쉬는 동안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은 아니다. 농사일과 병행하는 직업이 해녀일이다. 이른 새벽에 밭에 나가 김을 매거나 추수를 하다가도 썰물이 가까워지면 바다로 내달린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해산물 채취가 실패하면 해녀들의 발길은 바닷가의 신당으로 향한다. 찾아가는 날도 특별하게 정해진 날이 없다. 자신이 생기복덕한 날이라 여기는 날, 간소하지만 정성 어린 제물을 준비하고 새벽에 찾아간다. 당에 가지 못하면 '지'를 준비하기도 한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한없이 고맙고도 무서운 곳이다. 친정집보다 나은 곳, 나에게 가족이 먹고 살아갈 삶의 본전을 내어주는 곳, 그러나 저 푸르게 출렁이는 바닷속에는 죽음의 위협도 항시 도사리고 있다.

1. 물질 나가기 전, 바다에 지를 던지는 해녀 © 데이비드 앨런 하비
2. 해녀의 지 © 김순이



아직 제주해녀들이 축적하고 있는 바다에 대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어떤 학자도 제대로 연구해내지 못했으며,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제주해녀들이야말로 어떤 악조건에서도 바다가 있는 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여성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녀는 급속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15세 내외의 애기 해녀로부터 80세의 할망 해녀까지 제주 바다는 그야말로 해녀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35세 이하의 해녀를 찾아보기 힘들며 10대와 20대는 아예 없는 형편이다.

제주 바다가 일구어낸 자연과의 공존 지혜

2015년 12월 말 현재 제주 바다를 활동무대로 하는 해녀는 4천377명이다. 일 년에 한번이나 두 번 우뚝가사리 공동채취 때나 얼굴을 내미는 해녀들이 약 4천 명, 도합 1만여 명의 해녀가 존재하는 셈이다. 주축을 이루고 있는 60~70대의 고령자가 사망하면서 해녀 수는 날마다 줄어들고 있다. 다행스럽게 근래 해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실히 바뀌었고, 해녀를 직업으로 가지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림해녀학교에 이어 법환해녀학교가 생기고 이곳에 지원한 학생 중에는 현직 교수를 비롯해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도 꽤 된다. 이들의 체험을 통해 해녀의 삶은 보다 사실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해녀공동체는 폐쇄적인 태도를 좀처럼 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예전의 그 아름답던 관행들, 포용력과 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던 멋진 대상군 리더는 보이지 않고 마을에서도 이기적인 집단으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행정당국에서도 해녀 보존을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기존 해녀조직이 완강하게 버티며 젊은 해녀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제주바다에서 해녀가 사라질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해녀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전승 문화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칠고 야성적인 그들의 불문율 속에는 진주와 같은 지혜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존의 법칙이 엄연하다. 해녀들이 일구어낸 전승 문화는 해양을 무대로 한 생업기술로서 바다가 미래 자원으로 대두되는 21세기에 우리가 더욱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대상이다. 제주해녀의 강인한 정신과 자연과의 공존, 공동체 정신은 제주 여성이 전승해 가야 할 중요한 정신적 자원이다.



평대리 모녀 해녀의 삶

바당밭과 빌레왓(돌밭)을 일구는 슈퍼해녀 경옥 씨

글 송세진 (여행칼럼니스트) 사진 이일섭·이한구

오늘은 낮 12시부터 바다에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어제 바다에서 거둔 우뚝가사리다. 아침에 갑자기 서귀포에 다녀오느라 손보지 못한 우뚝가사리가 한 바닷을 차지하고 있다. 또 내일이면 부산에 조문을 다녀와야 한다. 시간은 없고, 주말부터 비까지 온다니 고양이 손이라도 빌어다 써야 할 상황이다. 애초에 우아한 인터뷰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으니 기자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다. 마음만 앞섰지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경옥 씨가 하는 모습을 살핀다. 우뚝가사리는 붉은색을 띠는 것이 상품이고, 초록이 가장 낮은 등급이다. 열심히 뒤집어 축축한 부분을 햇빛으로 올려 주면서 동시에 붉은 것들은 한 쪽으로 분류한다. 돕느라고 돕지만 등만 쪼개질 듯 아프고, 어설픈기 짝이 없다. 그저 흥내만 낼 뿐.

애초부터 모르고 자란 '남자가 도울 일'

경옥 씨도 그랬을 것이다. 엄마를 보고, 엄마가 하는 일을 따라 해 보고, 엄마를 돕고……. 그러다 자신도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바다를 일터로 삼은 세 아이의 엄마다. 어린 시절에는 바닷가에 나와 엄마가 오길 기다렸다가 무거운 망사리를 함께 건져 올렸다. 지금은 이양기가 있어 힘을 덜어주지만, 그땐 그런 게 어디 있어? 무거운 멍게, 소라 같은 것들을 들어 올릴 때 '바깥양반'들이 나와 도왔다. 경옥 씨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 당연히 '남자가 도울 일' 같은 건 애초부터 모르고 자랐다.

“긴 팔 입어요. 예쁜 살 다 타요.”

준비 없이 찾아온 손님에게 건네는 말이 친절도 하다. 경옥

씨도 바다에 나갈 때는 선크림 바르고 화장을 열심히 하지만 햇빛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 과연 여행자들이 바닷가에서 잠깐 누리는 햇빛과는 강도부터가 다르다. 덕분에 우뚝가사리는 잘 마르고 있다. 피부를 태우는 햇빛이 야속하지만 내내 비가 오는 것보다는 좋다. 지난 5월, 비가 많이 올 때는 거둬들인 해초를 어찌할 도리가 없어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 햇빛 아래 뒤집고 뒤집고를 반복하는 동안 전화도 설 새 없이 올린다. 어떤 삼촌은 수매할 때 쓸 포대를 달라하고, 어떤 삼촌은 물때를 물으신다. 잠깐 어촌계 열쇠가 없어졌다며 소동이 있었고, 다시 올리는 전화로 경옥 씨는 손과 몸이 바쁘다.

익숙한, '엄마와 딸'이 있는 풍경

갑자기 들리는 큰 말소리. 감자밭에 나갔던 '엄마'가 왔다. 경옥 씨를 설 새 없이 나무라는데, 도저히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어리둥절해 하자 경옥 씨의 짧은 설명은 이거다. 엄마의 우뚝가사리를 전혀 뒤집어 놓지 않아서 게으르다고 타박하는 중이란다. 엄마는 청각장애인, 현역 해녀로서 경옥 씨의 스승, 어느새 70을 바라보는 나이, 일찍 남편을 잃고 딸

들을 키워냈다. 잘 들리지 않으니 말소리가 보통 사람보다 몇 배는 크다. 경옥 씨를 혼내느라 그 소리가 주변을 찌렁찌렁 울리는데 정작 이를 받는 딸은 시큰둥이다. 혼한 '엄마와 딸'이 있는 풍경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력은 혼하지 않다. '해녀 모녀' - 젊은 해녀를 찾아볼 수 없는 요즘, 해녀가 된 경옥 씨는 대대적인 뉴스거리였다. 덕분에 방송과 매체에 꽤 많이 소개되기도 했다.

"사람들 많이 찾아오죠? 귀찮지 않아요?"

바보 같은 질문이다. 이미 주변에서 그녀를 찾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 찾는 사람 누구에게나 과하지도 않게, 덜하지도 않게 친절을 보인다. 그러니 기자라고 더 반길 이유도, 귀찮을 이유도 없다. 그뿐인가? 하는 일도 해야 할 일도 많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뿐 상황을 더 확장하여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않는다. 그녀가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제 곧 금채기가 온다. 바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다. '그때는 좀 쉬겠구나.' 생각했더니 경옥 씨에게 한가한 시간이란 없다. 남편을 도와 유기농 당근과 감자 농사가 바쁘단다. 경옥 씨는 남편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어릴 적 엄마 따라다니던 꼬마가 어느 날 막내 해녀가 되었다. 이젠 어엿한 중군,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도 많다. 건강한 에너지가 충만한 경옥 씨는 한 남자의 아내이며 세 아이의 엄마로 살림꾼이기도 하다.



청년 해녀로서
감당해야 할 일도 많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즐기고,
문제를 발견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점차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옥 씨의 모습이
든든하다.

수산물 중개업을 하는 어머니를 따라 온 남편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한다. 과감하게 먼저 다가간 경옥 씨는 결국 사랑하는 남자를 얻었다. 역시, 멋진 여자 경옥 씨!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남편이 그저 좋다고 한다.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부산으로 간 경옥 씨가 다시 제주도에 온 것은 남편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 때문이었다. 귀향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곳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강한 여자다. 어촌계 간사일을 하며 다시 자연스럽게 제주에, 바다에, 해녀에 익숙해졌다. 어머니를 돕던 어렸을 때는 절대 해녀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었다. 일만 던져주는 바다가 원망스럽던 시절이다. 그러나 어른이 된 경옥 씨에게 바다는 귀하고 소중한 생활 터전으로 다가왔다. 곧이어 경옥 씨는 그 '터전'에 뛰어들기로 했다. 그렇게 막내 해녀가 되었다. 경옥 씨 바로 위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한참 계산을 한다. 언니로 보이는 동료

해녀가 있어서 물어보니, 마흔이 넘은 언니인데, 서열상 자기 후배라고 한다. 하핫! 경옥 씨는 이제 막내가 아니었다. 언니 후배를 둔 어엿한 중급이다.

매일 쌓이는 청년 해녀의 숙제들

여전히 바다는 두려운 존재다. 요즘도 가끔 멀미가 난다고 한다. 물속에 거꾸로 몸을 넣으면 물이며 해초가 일렁일렁하니 속도 울렁거리고 구토도 나온다. 초급 해녀들은 잠수와 구토를 반복하며 일을 배운다고 한다. 잠수 시간도 1분을 넘지 않는다. 숨을 잘 참는 해녀 중에는 2분을 넘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은 1분 내외다. 그 사이에 해초도 건지고, 전복이며 성게, 해삼 등을 만난다. 그렇게 들고 나기를 반복하며 대 여섯 시간을 바다에 머문다.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욕심과 목숨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그렇지만 저도 모르게 바위틈에 발이 끼거나 해파리 같은 예상치 못한 위협을 만날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들은 2~3명씩 짝을 지어 물질을 나간다. 고무 알레르기가



있는 해녀도 있다. 막내로 들어온 언니 후배 해녀가 고무 알레르기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또 최근 그녀가 알게 된 것은 해녀들의 몸 안에 쌓이는 질소이다. 질소 중독은 잠수병의 일종으로 혈액에 질소가 녹아들어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게 된다. 그동안 물질만 하고 나면 왜 그렇게 몸이 가려운지 몰랐는데 질소가 원인일 것이라 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해녀 삼촌들은 어떤가? 그녀는 안타까워했다. 산소방에서 천천히 질소를 빼내는 '챔버'가 제주도 내 병원에 설치된 것은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정보를 모르고 살았던 것, 그 무지했던 시간을 마음 아파했다. 이러니 '청년 해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매일매일 쌓인다. 이처럼 '어린 해녀'로서 지역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도 크다. 젊은 해녀의 대표주자가 되었으니 찾는 사람도 많고, 안팎으로 공유해야 할 지식과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그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그녀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틈틈이 주변 사람들과 차 한 잔도 마시고, 시간을 내 책을 읽고, 모여서 토론도 하고, 서로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고 있었다. 커피를 좋아하냐고 물으니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며, “시골 여자가 아메리카노 좋아한다니 이상하죠?” 그럴 리가. 그녀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다. 다음에 들릴 때는 질 좋은 아메리카노를 사다 줘야겠다. 12시. 바다로 들어갈 시간. 속이 울렁거리기 때문에 식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무 옷과 망사리를 챙겨 어머니와 함께 해녀탈의장으로 향했다. 두유 하나를 마시더니 옷을 갈아입고 준비에 바빴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참이라고는 두유 하나 먹은 사람이 씩씩하기만 했다. 한 사람당 망사리 3~4개, 이미 무거워 보이는 빈 망사리와 6kg 납덩이를 허리에 달고 바다로 향했다. 서로의 바다 밭이 다른 듯 함께 온 어머니는 방향이 달랐다.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금요일의 해변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경옥 씨는 그 틈을 유유히 빠져나가 바다로 잠수한다. 그녀의 모습이 저 멀리 물결처럼 아른거릴 때 어디선가 가늘고 긴 “호잇~, 호잇~” 숨비소리가 들려 온다.



해녀 양성의 요람 한수풀해녀학교

글 노우정 (해녀학교 졸업생/프리랜서 작가)
사진 이일섭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는 곳이 없고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다. 제주도 내뿐 아니라 적지 않은 수의 유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비행기를 타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학교. 다른 학교가 무더위로 방학에 들어갈 한여름 무렵, 수업의 열기가 절정에 이르고 물속에서 향학열을 불태운다는 바로, '제주 한수풀해녀학교'다.

한수풀해녀학교는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2007년 제주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에서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해녀학교 및 해녀체험장이 귀덕2리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설립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다. 학생들이 입는 물옷은 한 기업에서 좋은 취지에 공감해서 일부 후원을 해주었다. 마을 해녀들이 물질 선생님

이 되고 포구 앞바다를 학교로 삼아서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세계 유일의 해녀학교를 시작한 것이다. 2008년에 한수풀해녀학교 1기를 모집하고 지금까지 도내, 도외, 이주민 여성, 외국인을 포함한 남녀 20~60대에 이르기까지 총 432명만이 졸업을 했다. 지금도 매년 모집정원보다 훨씬 많은 지원자가 몰려 거의 5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몰이하고 있다.

명예학생으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참석

지난 5월 14일에는 60여 명의 신입생이 자리한 가운데 한수풀해녀학교 9기 입학식이 있었다. 그런데 이날 특별한 입학생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바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주인공. 특별입학생 자격으로 입학식에 참여하고 해녀들과 함께 물질한 것이다. 리퍼트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해녀 여러분을 만나 아주 아주 행복해요. 해녀 여러분의 멋진 기술을 제게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준비됐어요. 조금 걱정하고 있어요.”라고 푹 부러지는 한국말로 인사를 해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오래전부터 해녀 문화와 물질을 배우고 싶었다고 한다. 해녀학교 측에서는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고 8월 말에 있을 예정인 졸업식에도 리퍼트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해녀학교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모두의 관심이 리퍼트 대사에게 쏠리는 동안 서양인의 얼굴을 곁에 한편으로 동양스러운 느낌도 주는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들어왔다. 잠시 얘기를 나눠보니 9기 외국인 입학생 ‘아그네스 손’ 씨라고 한다. 그녀에게 어떻게 입학하게 되었냐고 물었다.



아그네스 손

“미국에서 문화인류학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서 평소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해녀를 알고, 제주도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논문 주제를 ‘제주이주’에 대해 정하고 1년을 제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해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영도 좋아하고 제주 이주민도 많다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기보다는 해녀의 물질이 쉽지 않다는 것을 토로하는 한편 해녀학교에 품게 된 기대도 내비친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오늘 처음 바다에 들어갔는데 테왁을 붙잡고 물에 떠 있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직업으로 해녀가 근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해녀 선생님을 통해서 제주의 현재와 전통을 배우고 싶고, 학교생활 하면서 제주이주에 관한 논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남도 있어요

해녀학교가 매우 국제적이라는 생각이 들 무렵, 거무튀튀한 수염을 가진 남자들도 입학생 대열에 수줍게 서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해녀학교지만 정월 일부는 남자들도 입학을 허가해서 해남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한 한수품해녀학교

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단다. 여성들만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자질구레하게 힘쓰는 일이 필요할뿐더러, 실제 해녀도 물질이 끝나고 물건을 옮기는 것은 남자들의 몫이기도 하니 남자들이 있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한다.



“구쟁기 주워와보라”

해녀학교의 수업은 이론과 실기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제주해녀의 역사와 생활, 해녀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은 어떻게 다루는지, 물에 효과적으로 잠수하는 방법과 호흡을 참고 내뿜는 방법, 어떤 해산물들이 생활에 유용하고 어떤 것은 조심해야 하는지 물질을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우선 이론으로 배운다. 제주해녀들의 뿌리 깊은 공동체 정신도 어렵듯이나마 익히게 된다.

이론 과정이 끝나면 드디어 바다에 몸을 담그는 실기 수업이다. 자신의 기량을 판단하여 상군·중군·하군으로 나누어 조를 편성한 후 각 조마다 베테랑 해녀 선생님들이 배치된다. 해녀 선생님이 직접 잠수시범을 보이고 방법을 알려준다. 친절한 교육과 실습이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 떠 있기도 힘든데 머리부터 바다를 향해 잠수해서 바닥을 훑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고 진심으로 해녀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워진다. 차츰 수업이 수차례 진행되면서 학교 측에서 미리 뿌려놓은 구쟁기(소라)를 주워오도록 해녀 선생님들이 시범과 방법을 알려주며 해보라고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비록 힘들지만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느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귀척의 바닷물마저 모두 증발시켜버릴 듯 뜨거운 7, 8월의 여름에 해녀학교의 수업은 점차 절정으로 치닫게 되고 8월

말에는 드디어 졸업식이다. 해녀학교도 학교인 만큼 당연히 졸업시험이 있다. 마지막 수업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물질 실력을 스스로 평가한다. 미리 뿌려놓은 소리들을 많이 가져 올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데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남보다 깊은 바다에 뿌려진 소리를 먼저 가져오는 것이 필수다. 졸업시험 과목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수중졸업사진 찍기'도 저마다의 기량을 겨루는 기회가 된다. 해녀학교 바다 아래에는 수심 약 5m 정도에 해녀 동상이 있다. 수면에 떠 있다가 잠수해서 해녀 상을 부여잡고 멋진 동작을 취하고 사진을 찍으면 되는 것.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아직까지 실패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해녀 선생님들이 손을 잡고 해녀 상까지 친절하게 데려다주기도 하니 말이다.

바다는 매 순간 변화무쌍하다. 잔잔하다가도 바람이 불고 파

도가 일면 일순간에 위험이 닥쳐오기도 한다. 그러한 제주 바다에서 함께 물질하면서 맺어진 인연이고 보니 그 어느 학교보다 끈끈한 동료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해녀학교의 특성은 고스란히 졸업 이후에도 이어진다. 졸업생은 다음 기수의 입학식과 졸업식은 물론이고 수업시간에 안전요원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두세 차례 모여서 어촌계와 손을 잡고 여러 마을의 어장을 청소하는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한수풀해녀학교도 차곡차곡 전통을 쌓아가면서 제주사회에 그리고 해녀 문화 보존에 나름대로 기여할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셈이다.

자부심 지키기 위한 변화 시도

이렇게 두루두루 잘나가는 한수풀해녀학교지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처음에는 열화와 같던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다소 줄어들면서 갈수록 살림이 넉넉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일정 정도의 사용료를 받았다. 이러저러한 사업아이템을 가져와서 해녀학교의 이름을 빌리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외부의 유혹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세계 최초의 해녀학교라는 자부심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없는 살림에도 외부지원은 가급적 받지 않는다고 한다.

또 다른 고민은 개교 10년을 바라보면서 학교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안팎의 요청이 끊이지 않는 것. 아무래도 운영주체가 마을과 어촌계장을 비롯한 주민들이고, 저마다의 생업이 있다 보니 해녀학교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운영 기간 동안 실무를 책임지면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이끌어갈 사무장직을 두어 작년부터 7기 졸업생인 최상훈 씨가 사무장을 맡아오고 있다. 이로써 학교의 수업을 체계화하고, '해녀학교의 날'을 정해 소박하지만 멋진 마을축제로 만드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수풀해녀학교 최상훈 사무장에게 왜 학교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갖게 된 것인지 비결을 물었다.

“제주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녀학교는 그것이 허용되는 곳이고, 가까이 접할 수 없는 해녀들과 함께 물에 들어갈 수 있을뿐더러 심지어 물질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입학생들의 면면을 보면 남녀노소, 지역, 직업에 상관없이





최상훈 사무장

마을의 해녀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조심스럽고도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온난화로 인한 마을 어장의 생산력 저하로 인해 소득이 예전만 못한 것도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녀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해녀가 되는 길을 공식적으로 양성화해야 할 때가 있으리라 봅니다. 해녀학교 졸업생들은 이미 해녀와 해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질기술도 있으니 해녀 공동체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만 되어 있다면 때가 되어 해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해녀 문화 전승기반 넓혀야

작년까지만 해도 한수풀해녀학교의 안내 팸플릿에는 “해녀 양성의 요람, 세계 유일의 해녀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담겨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쓰기 모호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서귀포시 법환동에도 어촌계가 주축이 된 해녀학교가 생겨난 것. 작년부턴 ‘법환해녀학교’에서 의욕적으로 해녀 인턴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해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녀 문화 보존에 관심 있는 모두가 슬기를 모은다면 지금 2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녀학교는 신진 해녀양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재능있는 해녀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계 해녀들이 자신들의 딸과 며느리에게 그러했듯이 애정을 담은 지도가 필요하다. 아마도 해녀학교의 역할이라면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알려주는 것, 굳이 해녀가 될 생각은 없더라도 해녀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해녀학교가 제 몫을 해내고 함께 저변을 넓혀간다면 해녀 문화의 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학교의 형태뿐 아니라 법환/사계/하도/성산 4곳의 ‘어촌체험마을’에서는 해녀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녀체험을 통해서 제주해녀 문화 보존에 관심 가져 볼 일이다.

매우 다양합니다. 도내와 도외를 구별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매주 비행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도 여럿 있습니다. 바다와 해녀 그리고 제주도를 좋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직업 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다양해서 놀라울 지경입니다. 일반 직장인과 주부는 물론이거니와 의사, 변호사, 농부, 작가 등 전문인도 있고, 제주도에 사는 외국인 강사나 결혼이주여성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체험과 경험을 위해 해녀학교에 입학하지만 안 좋은 경제사정 때문인지 생계에 도움이 될까 하고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해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해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해녀학교를 나와 해녀가 되는 것,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2만 명에 이르던 해녀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5천여 명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마을마다 새롭게 해녀를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어촌계가입비와 수협가입비 등의 금전적 부담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이

제주의 마을

제주의 마을은 특유의 끈끈한 정이
진하게 스며든 공동체 문화와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런 정과 향기를 품은 마을을 찾아간다





에메랄드그린 바다 위에 솟은 화산섬 비양도

초록 섬, 비양도.
 제주 서쪽 바다에 정겹게 떠 있는 작은 섬.
 한림항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 가면 도착한다.
 100여 명이 사는 바다 위 그림같은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글 이준석 (PD, 아일랜드TV) 사진 이일섭

금능과 협재해변은 제주에서도 그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바다 한가운데를 지키고 선 비양도가 에메랄드빛 바다와 만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한림항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자리를 지키고 선 비양도. 하루에 세 번 오가는 도항선을 타면 10여 분만에 비양도와 가까워진다. ‘날아온 섬’이라는 뜻의 비양도(飛揚島)를 흔히 ‘천년의 섬’이라고도 부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목종 때, 1002년과 1007년 두 차례에 걸쳐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형성된 섬이 비양도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비양도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섬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비양도 가는 방법

한림항에서 하루 세 번 비양도를 오간다.

한림항 → 비양도: 9시, 12시, 15시 출항 (신분증 지참)

15분 내외 소요되며 날씨 상황에 따른 결항 가능성 여부 꼭 확인!

문의 064-796-7522



두 개의 분화구로 이루어진 비양도는 해발 114m의 오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비양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비양봉에는 세월 속에서 뱃사람들을 인도해 온 등대가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상에서 제주 본섬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제주를 품에 끌어안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타원형의 비양도는 해안선 둘레만 3.5km이다. 섬에는 자동차가 없어 교통수단이라고는 마을에서 대여해주는 자전거가 유일하다. 해안선을 따라 걸어서 한 시간 반이면 섬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어 진정 비양도를 즐기고 싶은 이들은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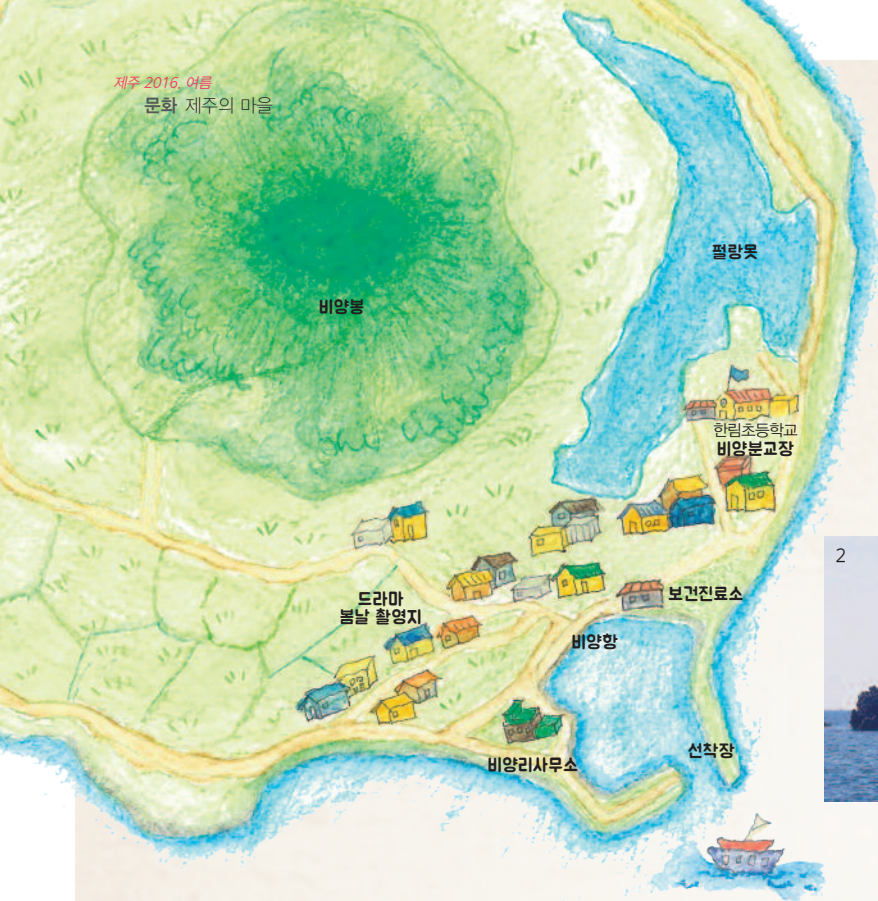
비양도 곳곳에는 특이한 모습의 바위들이 있다. 코끼리를 닮은 ‘코끼리 바위’는 물론,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애기 업은 돌’도 있다. 예로부터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이 바위에 치성을 드리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 독특한 모습의 바위들은 화산활동의 흔적인데 ‘애기 업은 돌’은 화산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비양도 동남쪽에는 ‘펼랑뭇’이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다. 해수로 이루어진 염습지로, 바닷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다. 해송과 갯잔디 등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어 생명력이 넘친다.

1. 비양봉 능선에서 바라보이는 본섬의 협재해변
2. 염습지 펼랑뭇
3. 비양봉을 배경으로 둔 마을 올레
4.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장



제주 본섬에 비해 작은 섬이지만, 그곳에서 삶을 일구며 살아가는 70여 가구의 비양리 주민들이 있다. 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는 6월에서 8월이면 어민들은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 비양도 부근에서 꽃멸치 어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꽃멸치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셋줄멸이다. 조업을 끝낸 어민들은 포구로 돌아와 그물에 걸린 꽃멸치를 터는데 이 모습은 여름에만 볼 수 있는 귀한 광경이다.

아이들은 포구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놀이공원 부럽지 않은 즐거움을 얻는다. 바위틈에서 보말과 갱이(계)를 잡으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주민들에겐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1. 애기 엽은 돌
2. 코끼리 바위



비양도 토박이 해녀
고순애 씨가 전하는
비양도의 여름과 별미



고순애 비양도 어촌계장

어릴 때부터 물질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해녀는 아니고요, 헤엄치면서 소라 잡고 보말 잡고 하는 건 했었는데, 밖에서 생활하다 비양도 시집와서 살다 보니 물질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계장님네 어머니도 해녀였나요?
 “우리 어머니는 완전 상군(물질을 잘하는 해녀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우리 3대가 다 해녀였죠. 외할머니 성할머니도 다 해녀였고, 우리 때는 해녀 아니면 할 일이 없으니까 다 물질하면서 먹고, 물질로 돈 벌어서 동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하면서...”
 고순애 씨가 비양도에서 맛봐야 할 음식이 있다면 권해주신 비양도 삶이 들어있는 맛, 꽃멸치. 비양도 꽃멸치는 가격으로도 일반 멸치보다 10배를 호가한다. 어족 보존을 위해 여름 석 달 정도만 조업이 허용된다. 비양도 근처에서 알을 낳기 때문에 어장이 형성되어 이 무더운 여름, 비양도에서 만나는 꽃멸치는 그야말로 살이 통통히 오른 제철 음식이다.
 배추와 꽃멸치를 함께 넣고 바글바글 끓이고 매운 고추를 잘게 썰어 비린내를 잡아주면 끝!
 “우리야 여기서 나는 것 아니면 밖에 가서 사다 먹지 못하니까 그때그때 나는 것, 이 철이면 이걸로 나물 넣어서 멜국 끓여먹고, 비양도는 바다에서 나는 게 항상 첫 번째예요.”
 그렇게 건네준 꽃멸치국.

일단 크기부터가 남다르다. 기존 멸치에서 맛볼 수 없는 육질과 알집이 색다른 식감을 주고 한여름 뜨거운 국을 먹지만 왠지 보양식을 먹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비양도 풍경도 좋지만 작은 국그릇에 담긴 꽃멸치국은 이 섬에 살았던 사람들의 향수와 정서가 담겨있었다. 어촌계장님과 헤어지면서 언제까지 비양도에 계실 거냐고 물었다.

“죽을 때까지 살아야죠.
 이 자체가 보물섬인데 나가서 뭐합니까?”





© 제주올레

청보리 푸른 물결로 일렁이는 섬, 가파도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 그 곁에는 소담한 섬이 하나 있다.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이자 해발 20.5m,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낮은 섬 가파도다. 청보리축제가 열리는 봄의 가파도가 절경임에도 사시사철 섬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제주 본섬의 풍경이 단연 최고이기 때문이다.

글 김영희 (프리랜서 작가) 사진 이일섭

가파도는 가오리와 그 모습이 닮았다고 해서 가파도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파도가 더해진 섬'이라는 뜻에서 가파도(加波島)로 불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파도와 바람이 세다. 도항선이 바다 사정으로 인해 운항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다. 척박한 땅과 바람이 거센 자연환경, 이 섬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주민들은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보리를 심고 수확해왔다. 대부분이 제주의 재래종 보리인 '향맥'인데 보릿대도 크고 잘 자라서 주민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식재료였다.

현재 가파도에서는 섬 전체의 2/3 면적에서 보리를 수확한다. 봄이 되면 섬 전체가 청보리의 푸른 물결로 일렁이는데, 주민들은 이를 이용해 가파도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4~5월이 되면 청보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돌담과 바람에 흔들리는 청보리밭, 탁 트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제주답다.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는 방문객들의 마음에도 위안이 된다.



봄의 가파도가 절경임에도 사시사철 섬을 찾는 이들의 발
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파도와 제주 본섬의 모슬포항
사이의 거리는 겨우 5.5km로 굉장히 가까운 편인데, 이
곳에서 바라보는 제주 본섬의 풍경은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도 단연 최고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산방산과 송악산은 물
론, 날씨만 허락한다면 제주의 중심인 한라산까지 제주의
여섯 개의 산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다. 발길을 내딛는 곳
에 바다와 마라도가 있고, 본섬의 산방산이 함께 하니 홀로
가파도를 따라 걸어도 적적하지 않다. 자연은 최고의 길동
무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청정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파도는 '탄소 없는 섬'을 지향
해왔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공급하고,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바꾸고 있다. 전신주를 지중화해 섬에 풍경
을 더하는 등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까지는
주민들의 노력도 컸다.



© 김동아



자연산 해풍자연건조
가파도 돌미역, 가사리, 모자반, 툯
문의 064-794-7108 (가파도 여촌계사무실)



가파도 가는 방법
모슬포항에서 하루 네 번 가파도를 오간다.
모슬포항 → 가파도: 9시, 11시, 14시, 16시 출항 (신분증 지참)
15분 내외 소요되며 날씨 상황에 따른 결항 가능성 여부 꼭 확인!
문의 064-794-5490~3



가파도가 최고 살기 좋다는
진명환 이장님의
가파도 이야기



진명환 가파도 이장

가파도 자랑할만한 매력은?
“약 170여 명의 주민이 사는 가파도는 개발도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이 살던 모습 그대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높은 고도가 20m밖에 안되어 바다와 특히 청보리가 있을 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한 번쯤 일탈을 꿈꾸는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찾을 수 있는 곳이며 바다를 터전으로 두고 살아온 섬사람들의 오랜 삶의 이야기가 있는 제주도의 중요한 부속섬 중 하나이죠.”

청보리축제, 마을에 일어나는 변화는?
“키 작은 섬 가파도의 17만 평 보리밭이 겨울부터 초여름까지 들판을 푸르고 누렇게 물들입니다. 4~5월은 거센 해풍에 초록빛 보리들이 일렁입니다. 2009년 처음 개최된 청보리 축제는 섬이 주는 여유로움과 느긋함을 만끽할 수 있고 청보리밭 보물찾기, 가파도 어장체험, 구정기(소라)구이 무료 시식 등 주민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소 없는 섬을 통한 변화와 효과는?
“가파도를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제주 만들기 프

로젝트의 축소 모델로 삼고 태양광,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가파도는 섬에서 본섬을 바라보는 풍광이 좋다. 특히 야경이 좋아서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섬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탄소 없는 섬에 이어 요즘 마을은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시작해 한창 준비 중에 있다.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가파도 보리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직거래로 운영하고 있다.



가파도 보리로 만든 청보리 미숫가루, 보리쌀, 청보리차
문의 064-794-7130 (가파리사무소)

체험 어장 마을
넓은 바닷밭을 가진 유구한 역사
구좌읍 하도리

글 이선아(프리랜서 작가) 사진 이한구·이일섭



장마가 어느새 성큼 다가왔다. 연중 강수 일이 무려 140일이 나 되는 제주에 살고 있으니 비야 익숙할 법도 한데 이 기간에 내리는 비는 조금 다른 느낌이다. 흐리고 비 내리는 날이 반복되는 지루한 장마가 지나야 비로소 섬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여름을 맞이할 걸 알기 때문이리라. 별방(別防)으로도 불렸던 구좌읍 하도리는 6.7km나 되는 긴 해안로를 갖고 있으면서 바다까지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지대에서 당근과 무를 재배하는 반농반어의 마을이다. 구좌 당근은 전국 생산량의 70%이면서 맛이 좋다. 마을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마음을 홀린다.

너북게 펼쳐진 밭과 돌담,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의 풍경을 보는 순간 22년 동안 방영된 농촌드라마 '전원일기'의 한 장면을 보듯 소박하고 푸근한 감동이 먼저 전해진다. 마을의 관계자는 잘 쌓인 아름다운 밭담을 보려고 일부러 하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귀뽀한다. 자연의 색이 오롯이 두 눈 가득히 담기는 편안한 풍경이다. 창흥동, 동동, 굴동, 신동, 서문동, 서동, 면수동 총 7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마을에는 1천5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살고 있다.

가장 많은 해녀가 사는 하도리

올레길의 가장 마지막인 21코스가 하도리의 해녀박물관에서 출발하는데 종달리까지 넉넉잡아 3~4시간 완주하는 짧은 코스이다. 마을의 시작점이기도 한 해녀박물관은 2006년 개관했는데 이곳에 건립된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일대는 일제에 맞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 투쟁했던 제주해녀 항일운동의 발상지이면서, 하도리는 우도와 함께 실제로 가장 많은 해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해녀박물관에는 제주해녀들의 역사와 문화, 생활풍습과 삶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해녀들의 삶을 알지 않고 제주를 알기는 어렵다는 말은 괜한 이야기가 아니다. 단순히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어서가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해녀의 삶이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하도리의 해녀는 260여 명. 주로 활동하는 해녀의 평균 나이는 60대로 가을부터 봄까지 바다에 들어가 툷, 감태, 소라 등을 채취한다. 5월 한 달은 우뭇가사리(천초)를 내내 채취하고 요즘은 성계를 잡는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면 남편들도 바닷가에 나가 끌어올리고 손질하는 작업을 함께한다. 오후가 되면 이런 일상적인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금은 나지 않지만 과거에는 미역의 생산량이 많았다. 하도리 미역은 당시에 품질이 좋아 최고로 쳐 주었는데, 남해안에서 양식을 시작하면서 점차 줄어들었다. 지금은 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고 4~5시간 물질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엔 훌겁옷을 입었기에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을 1시간 채 버티지 못했다. 수도시설도 없어 그대로 불에 찌고 말리는 척박하고 힘겨운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다.





부유함 대신 자연생태의 풍요로움 선택
복원을 통해 옛 것을 지키고
보존을 통해 마을의 미래를 키워가고 있다



무속신앙이 많이 남아있는 하도리에는 할망당으로 부르는 본향당이 2개 있다. '삼신할망당'에서는 해마다 음력 1월 12일이 되면 과세문안(過歲問安)이라 하여 자녀들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고 신년운세를 보았다. 음력 2월 13일에는 신동 해녀탈의장 동쪽 해안가 언덕에 있는 '각시당'에서 바다의 여신 영등할망을 맞이하는 '영등맞이굿'을 한다. 과거에는 이곳서 해녀굿도 치렀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 하도리 7개 동(洞)에는 각각 어린이들이 아프면 빌던 '일똥당'이 있는데 현재는 1곳만이 남아있다. 마을 곳곳에는 이러한 당들을 비롯해 절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이 많은데 이를 두고 하도리 김승선 이장은 의지하고 견뎌야 했으므로 그만큼 삶이 고달프고 팍팍했던 게 아니었겠느냐 설명한다.

“지금도 마을은 넉넉하거나 여유롭지 않아요.” 김승선 이장은 풍요롭지 않은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제주 안에서 어느 곳보다 느리게 시간이 흐르는 것이 이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은 까닭이다. 다른 마을에서 땅을 고르고 건물을 짓고 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동안 그저 고요히 흘러왔을 뿐이다. 마을 직영 양식장 1곳 외엔 양식장을 만



들지 않아 깨끗한 어장을 지켜왔다. 옛것을 복원하면서 주어진 자연을 가꾸고자 했다. 그러나 최근 하도리 마을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마을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보존과 복원이라는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다. 마을의 발담을 정비하는 것이 그 중 하나. 수익이 우선이 아닌 마을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바람이다.

하도리에서는 옛 제주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해녀 박물관에서 해안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제주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된 별방진(別防鎭)을 만나게 된다. 조선 초기 우도에 왜적의 침입이 잦자 1510년(중종 5) 제주목사 장림이 김녕방호소를 옮겨 축성한 것이다. 길이만도 1천8m에 달한다. 해녀들이 불을 쬐던 자리인 불턱은 총 11개 중에서 현재 4개가 마을에 남아있다. 그중 3개가 옛 모습 그대로이다. 원담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원(垣)은 울타리·담이란 뜻의 한자어로 바다에 돌담을 쌓아 밀물 때에 고기가 들어오면 물이 빠지면서 그 안에 갇힌 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작은 포구들을 지나 보이는 풍경은 긴 해안도로와 검은 현무암으로 둘러진 발담이다. 해안도로

잘 쌓인 아름다운 발담을 보기 위해 일부러 하도리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자연의 색이 오롯이 두 눈 가득히 담기는 편안한 풍경이다





가 만들어지기 전의 발담은 현재보다 더 높았다. 바다의 염분이 바람을 통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토착민과 이주민의 소통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필수조건

제주 이주 열풍과 더불어 하도리에도 100가구가 훨씬 넘게 늘어났다.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은 살갑게 얼굴을 맞대고 밥 먹듯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낯선 이들이 섞이면서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주민들의 유입으로 어린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마을 공동체로서 서로를 보듬고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승선 이장은 앞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 지금까지 그랬듯 차근차근 천천히 유연하게 만들어갈 예정이다. 주민들의 행복이 최우선이기에 그렇다.



고영봉 하도리 주민

하천이 없어 더 깨끗한 하도리 바다
바다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어촌계의 노력 계속돼

“하도리에 없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천이고, 하나는 오름이죠.”

김승선 이장의 말이다. 환경적 탓도 있지만 양식장 건립과 육상개발을 제한하면서 바다의 환경은 깨끗하기로 소문났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오염원의 증가로 어장이 황폐해져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산업이 당면한 공통의 문제다. 무분별한 남획도 큰 일조를 했다. 하도리 어촌계에서는 어장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작업 일수를 줄이고 수확량을 조절했다. 이후 소라와 우뚝가사리 등의 생산량이 증가의 추세로 돌아섰고, 이런 결과로 2013년도에는 전국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도리의 마을해설을 맡아 함께 동행해준 고영봉(67)씨는 마을 곳곳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마을 박사로 감탄을 마지않았다. 한때는 잘못된 판단으로 물터를 매립했다가 다시 들어내 복구한 흔적도 있고, 원형 그대로 온전하게 복원되지 못한 곳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다. “다 개발하면 후손들이 할 게 없어지잖아요. 지금의 모습을 보존하고 아꼈다가 물려줘야죠.”라며 김승선 이장의 뜻과 통하는 보존과 복원에 대한 신념이 다시 한 번 전해졌다.



맑은 산물, 깨끗한 바다,
그림 같은 정취,
즐거운 체험

하도어촌체험마을



대나무낚시체험



어촌체험마을은 제주에서 6곳뿐인데 그중 하나가 하도리다. 영등의 바닷가로 일컫는 하도리 어촌체험장에 가면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바닷잡이체험(바닷가 해산물 채취), 불턱체험(소라 구워먹기), 마을 해녀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는 해녀체험, 대나무 낚시체험, 스노클링체험, 원담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바다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 관광객은 바다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어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한다. 안전하면서도 과도한 채취로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

문주란 자생지인 토끼섬, 제주 최대의 철새도래지
희귀종들이 모이는 청정마을 하도리
굴동포구를 지나면 작은 섬이 보이는데, 국내 유일한 문주란의 자생지로 알려진 토끼섬이다. 7~8월 문주란이 만개하면 마치 토끼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재미있게도 섬 방향으로 이어진 길 이름이 '문주란길'이다. 문주란



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애정이 한껏 느껴졌다. 그 섬과 마주한 곳은 옛날 염전이 있었던 곳으로 여기에 멸종위기로 인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인 황근과 해녀콩이 서식하고 있다. 해녀콩은 비양도와 우도 등 제주에서도 몇 안 되는 곳에서만 자라는데 과거 해녀들이 낙태해야 했을 때 먹었다고 전해진다. 잘못 많이 먹으면 치사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가진 식물이다.

넓은 백사장을 끼고 있는 하도리해수욕장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수심이 얕지만 투명한 파도를 모으는 맑은 물에 매료된다. 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이는 길 맞은편은 제주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유명한데, 여름철이면 호수로 연결되는 자그마한 용천수 터에 더위를 피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노랑부리저어새, 황새, 백로, 가마우지류 등 30여 종 3천~5천 마리의 철새가 찾아드는 이곳은 가을이 시작되면 갈פות으로 그윽하고 아름답게 물든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과 동물이 찾는 안식처를 어찌 훼손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대로를 지켜가고자 애쓰는 이유 중 하나다.

제주에 가진 모든 것을 품다

중산간부터 해안에 이르는 곶자왈 깊은 화순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는 바다와 하천,
오름과 곶자왈 제주에 가진 모든 것을 품은
농어촌인성학교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될 만큼
천혜 자원이 풍부한 마을이다.

글 장혜리 (☞ 아일랜드스토리 작가) 사진 이한구





화순리 황개천_드론 촬영 © 아일랜드 TV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는 서쪽 산방산과 동쪽 월라봉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로 담수 물이 많아 물이 흐르는 지형을 따라 촌락이 형성되었다. 화순리의 옛 지명인 '번내'는 18세기 이전 포구와 마을을 뜻하는 명칭으로 쓰이다가 '곤물'이라는 이름과 합쳐져 화순리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큰 물줄기 '번내'와 '곤물' 중 '번내'는 마을을 가로질러 황개천 하류로 향하는 물로 그 물줄기가 하류로 오면서 넓고 끊임없이 흐르는 모양으로 모양새가 '번번하다'라는 뜻으로 번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곤물'은 마을 윗동네와 아랫동네 사이로 샘물이 흐른다 하여 '고을물' 동네로 불렸다는 설도 있고 '꽃자왈' 가운데에서 샘물이 흘렀기 때문에 편하게 '꽃물동네'라 불리며 '곤물동'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화순꽃자왈 '생태탐방숲길'

화순리 마을은 지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지대이며 산소를 방출하는 '제주의 허파'인 화순꽃자왈을 품고 있다. 해발 492m, 병악에서 시작되는 꽃자왈은 산방산 근처의 화순리 해안까지 약 9km에 걸쳐 내려오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기다란 형태를 가진다. '나무와 덩굴 따위가 돌과 마구 엉클어져 있는 곳'을 일컫는 '꽃자왈'은 예전에는 화전이나 수렵만 이루어졌을 뿐 농사짓기에 이롭지 못한 땅이어서, 화순리 주민들은 소나 말을 방목하거나 딸감을 구할 수 있었다.

꽃자왈에는 방목하며 기르는 소와 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촘촘하게



박영석 화순꽃자왈 해설사

세워졌던 잣담과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했던 흔적인 원형 움막, 그리고 일본군사시설까지 세월을 담아낸 흔적들이 남아있다. 마을에서 1km 이내에 있고 우거진 수림이 원시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화순꽃자왈에는 난대성 식물과 열대 북방한계 식물이 한데 모여 살아가는 원시림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 제주의 강한 바람에 살아남기 위해 나무뿌리가 돌을 붙잡고 바깥으로 드러나 자라난 식물 덩굴이 이색적 숲의 모습과 더불어 개가시나무, 새우난, 더부살이고사리, 긴꼬리딱새, 제주 휘파람새 등 50여 종의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다.

화순꽃자왈 생태탐방 숲길은 자연꽃자왈과 송이산책로, 삼나무데크 산책로 등이 잘 정비돼 있어 초보자도 쉽게 걸을 수 있다. 30여 분을 걸어 전망대에 올라서면 산방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태초의 숲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화순꽃자왈 마을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화산섬 제주가 간직한 지질의 변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화순꽃자왈은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지역민에게 건강한 삶을 영유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어렸을 때 빨갛, 소를 방목시키며 놀았던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어요.”

“돌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수분을 함유하고 지열을 보존해 겨울에도 양치류를 비롯한 식물들이 자라나는 덕에 연중 푸른 식물들이 자라나 소를 방목하여 키우는 목장으로 사용되며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노루를 만날 수 있는 생태탐방 숲길입니다.”

화순꽃자왈 탐방로

1 코스: 자연에너지운영센터 >> 꽃자왈탐방로 입구 >> 전망대 >> 생태주차장 (총 2km, 도보 약 50분 소요)

2 코스: 생태주차장 >> 전망대 >> 제주조각공원 (총 1.8km, 도보 약 40분 소요)

해설사 문의 070-4415-9008





화순금모래 해변

제주 올레 10코스 화순금모래해변은 뒤로는 산방산이 앞으로는 형제섬, 가파도, 마라도까지 보이는 빼어난 경치를 지니고 있는 해변이며, 길이 250m, 폭 80m로 백사장에는 검고 고운 금빛 색을 띠는 모래가 펼쳐져 있다. 이 해변 모래에는 실제로도 금이 함유되어 1960년대에는 금을 채굴한 광산사무소가 있었다고 한다.

물 많은 마을 화순리답게 마을 길을 따라 굽이굽이 흐르던 용천수와 바닷물의 만남이 이루어져 해수욕장 바로 앞에는 용천수를 이용해 운영되는 담수 풀장이 있다. 한여름에도 아주 차가운 물이 흐르는 풀장은 파라솔과 포석정, 샤워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화순 앞바다는 수심이 깊고 바다가 잔잔한 편으로 항만여건이 좋아 화순항이 있고 이와 함께 항만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심을 이용해 마을에서는 '제주해양레저 체험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요트, 바다자전거, 카약, 바다 래프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계절 내내 운영되어 바다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살아있는 용천수 '세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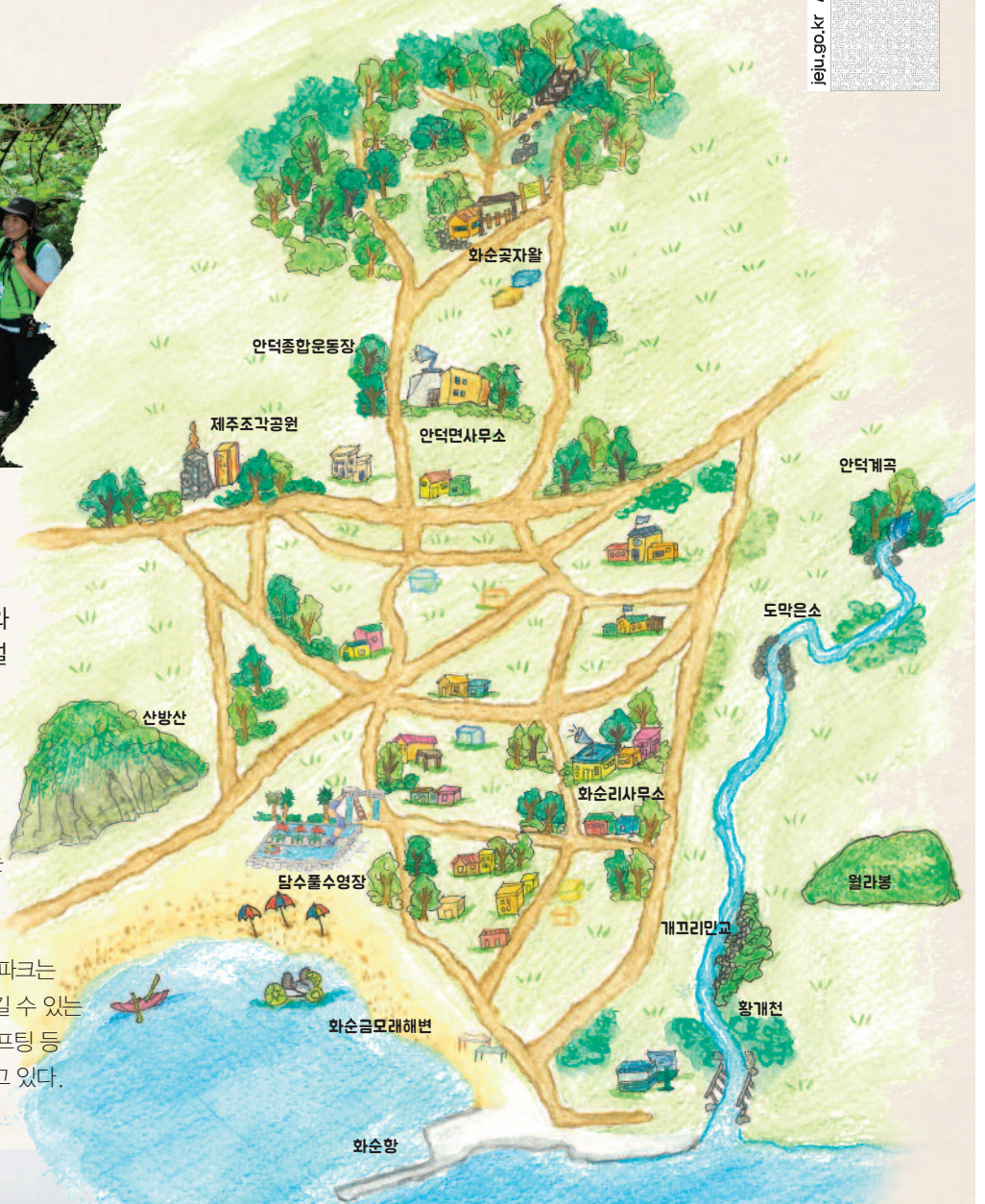
마을 밑으로 담수 흐르는 곳이 많아 용천수를 모아둔 '물통'이 많은 화순리 마을에는 현재까지도 꽤 큰 규모를 자랑하는 물통이 여럿 있다. 사계절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 예전에는 동네 아낙들이 빨래터와 농업용수로 사용되던 물이 현재는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혀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식수로 쓰이던 세양물은 물허벅을 걸어놓고 물을 길어가거나 물을 마시며 아낙네들이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었다.





곶자왈, 해변, 하천을
테마로 한 세 개의 탐방로와
다양한 생태, 문화, 체험휴양 시설
오감만족!!
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

다양한 생태, 문화 자원들을
경험하며 5대 자연욕으로 알려져 있는
일광욕, 삼림욕, 암반욕, 해수욕,
담수욕을 모두 즐길 수 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동력으로 즐길 수 있는
호비요트, 바다자전거, 카약, 바다래프팅 등
다양한 바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을
잇다
소정방폭포
'백중' 날
물맞이

사진 서재철
1970년대





사진 이한구
2016년

제주도 마을에서는 음력 7월 15일 '백중' 날 위병, 허리 병, 겨울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물을 맞는 풍습이 전해진다. 뜨거운 여름철 땀병에 쫓기고 앉아 검질을 매야 했던 제주 사람들은 이날 하루를 정해 물로 몸을 식혀 주며 여름철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풍습이었다. 백중 물은 약물이라 하여 바닷가로 흘러 떨어지는 물을 떠먹기도 했다. 물맛이 풍습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한여름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이 폭포를 찾아와 즐거운 한 때를 보내기도 한다.

서재철 사진작가는 도내 신문사 사진부장과 편집부 국장을 지냈고 제주도에 대한 깊은 시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며 '자연사랑미술관' 대표이다. 이한구 사진작가는 국내외의 산과 문화를 종으로 오르고 횡으로 걸으며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진위주 갤러리 류가헌' 대표이다.



제주의 여름 밥상

“부루, 흑곰, 톳앙 오라”

(상추 좀 뜯어 와라)

글 양용진 (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장)

제주의 여름, 제철 생선과 멬 그리고 한치
갯바위의 각종 해산물과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들로
더욱 풍요로운 밥상이 차려진다.

보리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수확을 앞두고면 섬은
설레기 시작한다. 거친 밥이지만 그래도 넉넉하
게 배를 불릴 수 있는 여름이기 때문이다. 제주
의 여름은 다른 어떤 계절보다 풍요로운 시기라
하겠다. 쌀농사를 지을 눈이 귀한 제주에서는
주곡인 보리를 수확하는 여름이 바로 먹을거리
가 풍부해지는 시기인데 그렇다고 단지 주곡이
풍부해진다는 것으로 풍요를 논할 수는 없다.
한국 사람들의 추수는 ‘쌀’에 국한되지 않고 ‘오
곡백과(五穀百果)’가 무르익어야 하는 법이다.
그래서 제주의 여름에 보리를 수확하는 것만으
로는 풍요로움을 거론하기에는 무언가 모자란
느낌이 든다. 제주의 여름 ‘백과’를 찾아서 풍성
함을 완성해보자.

여름의 제주를 상징하는 자연의 테마는 ‘바다’이다. 섬이라는 환경은 바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생활 방식을 자리 잡게 했고 사람과 바다는 자연스럽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제주 사람들은 제주의 여름 바다에서 여름이라 더 맛있는 먹을거리들을 찾아냈고 늘 그렇듯 바다는 아낌없이 자기 살을 내어 주었다. 제주 바다에서 얻어낸 식재료들은 다른 지방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제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남해안의 수산물과 제주의 수산물은 그 종류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우선 어류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농어나 민어 등 대형 어종을 여름이 제철인 생선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에서는 다금바리, 벤자리, 붉바리, 자리, 객주리 등 ‘리’ 자로 끝나는 다섯 가지 생선이 맛있다고 전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히려 자리나 뿔, 한치 등 작은 생선들이 여름 바다에서 나는 맛있는 먹을거리로 손꼽힌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의 여름 밥상에는 뿔국이 오르고 자

리 지짐이나 뿔 지짐이 오르고 이것들을 소금 뿌려 구워서 먹기도 하며 한치물회, 자리물회가 별미로 차려진다. 생선과 함께 제주의 여름 밥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은 해산물이다. 전복, 구살(성게), 구쟁기(소라), 보말(바닷고둥), 갯이(게), 문게(문어) 등 제주 해안선의 80% 이상을 구성하는 갯바위들 틈새와 얇은 바닷물 속에는 온갖 먹을거리들이 즐비하다. 특히 이런 조개류나 갑각류들은 이름만 들으면 다른 지역의 그것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인다. 전복, 성게, 소라, 고둥, 게, 문어... 다른 지방의 바닷가에도 흔한 것들로 인식된다. 그러나 한반도 동서남해안의 바다는 뿔이거나 모래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주처럼 거친 현무암 재질의 갯바위로 구성된 해안선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습성 또한 다르고 생김새와 질감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바릇국

제주의 여름 해안 갯바위를 뒤지면 전복, 소라, 오분자기, 보말, 성게, 갯이 등 다양한 해산물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모든 해산물을 모두 넣고 끓인 국이 바로 ‘바릇국’이다. 직역하면 ‘바다의 국’이라 할 수 있는데 읽을 때는 ‘바르국’이라고 읽는다. 미역국으로 끓이기도 하고 된장을 풀어 넣기도 하는데 된장국물로 끓인 바릇국이 바로 해물 독배기의 원조라 하겠다.



한치

한치는 발 길이가 한 치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주의 여름 바다에서 지천으로 잡히던 흔한 어종이었는데 다른 오징어와 비교하면 매우 부드러우며 데치지 않고 생으로 무쳐 먹거나 물회를 많이 만들어 먹었고 때로는 통으로 삶아서 먹물째로 초된장에 찍어 먹는 맛도 별미였다.



멜국

싱싱한 ‘멜’을 손으로 눌러 내장과 대가리를 제거하고 끓는 물에 넣어 바로 국을 끓인다. 얼핏 생각하면 비릴 것 같지만, 전혀 비리지 않고 오히려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맛이 일품인데 풋고추를 조금 썰어 넣어 칼칼하게 만들면 금상첨화이다.



들에서 얻어지는 제주 여름의 별미 또한 다른 지방과 다른 독특함이 있다. 우선 콩잎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생식하는 채소이다. 새우리(부추)도 빠지지 않고 특히 제주의 풋고추는 매운맛과 당도가 뛰어나서 청양고추의 원초가 되었던 고추이다. 향이 좋은 깻잎과 어느 집 우영밭(텃밭)에나 넉넉하게 자라는 부루(상추)도 여름 밥상에 빠지지 않는 쌈 채소이다. 여름이 깊어지면 물췌(조선 오이)를 잘라 냉국을 만들어 먹었고 수박을 먹고 나서 남은 수박껍질도 김치나 나물로 무쳐 먹었다.

그렇게 다양한 먹을거리로 차려지는 제주 사람들의 여름 밥상, 특히 저녁 밥상은 둥그런 두레반에 차려지기보다는 명석 위에 차려놓고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제주말로 “과랑과랑헌” 여름 햇별이 집안을 덥혀 놓아서 온 가족이 마루에 앉아 저녁밥을 먹기에는 아직 더운 탓에 마당에 명석을 깔고 그 위에 밥이 차려지는 것이다.

여름 밥상

다른 계절과 달리 여름에는 마당에 명석을 깔고 그 위에 모여앉아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저녁 식사를 하곤 했다. 갓 수확한 쌀보리로 밥을 지어 바람이 통하는 차룻에 담아놓으면 여름에도 이틀 정도는 상하지 않고 보관이 가능했고 생된장을 풀어 넣은 냉국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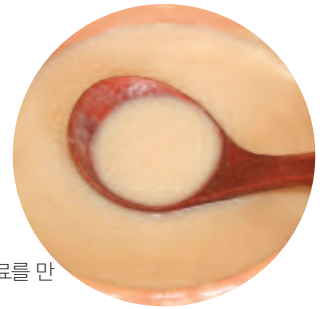




70년대 까지만 해도 제주의 마을마다 저녁 풍경은 대동소이 했다. 올레에서 떼 지어 놀던 동네 아이들은 거의 동시에 이 집 저집에서 어명들이 “OO야! 밥 먹으라!!” 외치는 소리에 각자 집으로 뛰어 돌아간다. 그리고는 어른들이 차룻을 쥐어 주며 “부루 흐끔 톨앙 오라(상추 좀 뜯어 와라).”고 시키면 우영밭에서 송키(채소)를 ‘툭아서(뜯어서)’ 정지(부엌) 물항아리에서 물 한바가지 끼얹어 씻고 차룻에 담아 명석 위로 들고 가서 앉는다. 그사이 명석 가운데에는 낭푼에 가득 담긴 보리밥과 가족 수만큼 떠 놓은 물웨 냉국이나 톨 냉국이 차려지고 5월에 담가놓은 마농지와 마늘 좀 다져 놓고 깨소금 넣고 무친 뽕젓과 생된장이 작은 보시(종지)에 담겨 함께 귀퉁이를 차지하고 좀 더 큰 접시에 자리나 뽕을 지져서 담아 놓는다. 그리고 어둑어둑 해 지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듯한 선선한 저녁 바람을 또한 반찬 삼아 비로소 크게 한입 가득 삼을 싸서 양 볼이 터질 듯이 입속으로 구겨 넣으면 그때만큼은 아무 걱정 없는 제주의 여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렇게 제주의 여름 밥상은 풍요로움과 여유로움과 자연을 담은 행복한 밥상이었다.

자리 구이


여름이 제철인 자리는 알이 배어 있어 맛있다. 자리는 비늘도 제거하지 않고 싱싱할 때 소금만 살짝 뿌려 굽는다. 그러면 비늘까지 바삭하게 구워지는데 워낙 작은 생선이라 가시를 발라먹는 것은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자리를 통째로 먹는다. 대가리부터 씹어 먹으면 마치 과자를 먹듯이 ‘바사삭’ 하며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진다. 반드시 약간 탄듯하게 바삭 구워야 하며 꼬리부터 먹으면 가시에 찢리기 때문에 머리부터 씹어 먹어야 한다.



신다리

더운 날씨 탓에 밥이 쉬어 버리면 여기에 누룩을 섞어 발효시키고 이를 걸러 물을 섞어 가볍게 끓여 음료를 만들었다. 또한 이 신다리를 놓아두면 식초가 되는데 대부분의 차가운 여름 음식에는 이 신다리 식초를 고르게 사용했으며 이는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는 제주 사람들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편백나무가 있는
나의 숲으로 가다

서귀포 치유의 숲

글 편집부 그림 김나현



© 홍성규

숲으로 향하는 길은 설렌다. 초록빛 일렁이는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고 마음이 평화롭다. 이렇듯 숲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치유의 숲은 전국적으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서귀포 치유의 숲'이 마침내 지난 6월 26일 개장을 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해발 320~760m에 있는 서귀포 치유의 숲은 시오름 일대 국유림 174ha에 조성됐다. 면적으로는 장성 치유의 숲(258ha)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제주에는 이미 휴양림과 사려니숲길, 꽃지왁 도립공원, 한라산 둘레길 등 다양한 숲길들이 도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서귀포 치유의 숲이 갖는 독특한 매력은 무엇일까? 서귀포 치유의 숲에는 난대, 온대의 다양한 식생이 고루 퍼져 있다. 특히 수령 60년이 넘는, 둘레가 서너 사람이 두 팔을 벌려야 겨우 감싸 안을 정도의 삼나무숲이 울창한 천연의 숲이다. 피톤치드, 음이온 등 높은 산림치유 인자가 있어 치유의 숲으로 가장 알맞은 곳이란 평가를 받는다. 치유의 숲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이다. 또 숲 치유란 '숲의 다양한 물리적 환경요소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요법'을 말하고, 숲의 모습, 소리, 향기, 음이온, 햇빛, 먹거리 등을 접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쾌적함을 느끼고 면역력이 향상되어 궁극에는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한 번 방문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숲을 체험하다 보면 기분 전환과 함께 스트레스 감소 효과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서귀포 치유의 숲은 인문의 공간이기도 하다

제주의 역사, 옛 제주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마을 터와 잣성이 있어 오래전 제주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숲길에는 가베뜨롱 치유숲길, 숨비소리 치유숲길, 오고생이숲 같은 제주토속 이름을 달고 다양한 치유 활동을 이끈다. 방문자센터와 건강 측정, 운동요법, 지형요법이 가능한 힐링센터, 편백열치유실을 갖춘 치유실도 마련돼 있다. 숲 속에서는 전문적인 산림치유지도사가 숲 속에서 걷기, 요가동작, 호흡, 명상 등의 활동을 이끈다. 힐링센터에서는 혈압과 맥박을 점검하고 숲길을 걷고 나온 뒤 신체와 기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홍성규



둘레가 서너 사람이 두 팔을
벌려야 겨우 감싸 안을 정도의
삼나무숲이 울창한 천연의 숲이다.
피톤치드, 음이온 등
높은 산림치유 인자가 있어
치유의 숲으로 가장 알맞은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서귀포 치유의 숲

1 가명오명 치유숲길 (1.9km)

방문자센터에서 힐링센터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난대림숲길

2 가베도롱 치유숲길 (1.4km)

자성을 옆에 두고 따라 걷는 이 길은 제주의 옛 이야기가 술술 들려온다.
*가베도롱: '가쁜한, 가벼운'이라는 의미의 제주어

3 벤조롱 치유숲길 (0.9km)

계곡길이 많은 녹색의 길, 이끼의 푸름이 몸과 마음에 싱그러운 상쾌함을 가져다 주는 숲길
*벤조롱: '신뜻한, 멋진'이라는 의미의 제주어

4 숨비소리 치유숲길 (0.9km)

붉가시나무의 균락으로 봄에는 숲 바닥에 떨어진 상록수의 낙엽을 볼 수 있고 가을, 겨울에 걸쳐 도토리를 주워 만져볼 수 있는 독특한 숲길
*숨비소리: 해녀가 바닷속에서 물질을 한 뒤 물 밖으로 나와서 내뿜는 숨소리

5 오고생이 치유숲길 (0.8km)

예로부터 활용된 돌길에 주는 고즈넉함이 보존된 숲길
*오고생이: '있는 그대로' 라는 의미의 제주어

6 쉬멍 치유숲길 (1.0km)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단풍나무군락이 있는 숲길
*쉬멍: '쉬면서'라는 의미의 제주어

7 엄부랑 치유숲길 (0.7km)

거대한 삼나무 군락지로 숲의 신비로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숲길
*엄부랑: '엄청난, 어마함'이라는 의미의 제주어

8 산도록 치유숲길 (0.7km)

돌계단과 계곡을 끼고 있으며 치유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음이온이 가득한 숲길
*산도록: '시원한'이라는 의미의 제주어

9 놀멍 치유숲길 (2.1km)

시오름을 오르는 초반부로 누구나 맨발 걷기가 가능한 곳. 놀멍 편백숲이 있어 천천히 걸으며 피톤치드 샤워를 즐길 수 있는 숲길
*놀멍: '놀면서'라는 의미의 제주어

10 하늘바라기 치유숲길 (1.1km)

낙엽수림과 삼나무, 편백나무 숲의 다양한 경관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숲길

11 힐링센터

치유실: 차를 마시며 나눔과 마무리를 하는 공간, 치유프로그램 운영
건강측정실: 혈압체크, 스트레스 측정기를 이용한 간단한 건강체크 가능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산1번지 일원(시오름 일대)
치유공간: 방문자센터, 치유샘, 치유실, 오고생이숲, 엄부랑숲, 놀멍편백숲, 산도록계곡 등
문의: 064-760-3773~7

바당서 건정 올린

보배로운 제주어

글 김순자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제주양, 빙 돌아가평 바당으로 둘러싸인 섬마을이다. 경허난 제주 사름덜은 바당광 관련헌 한한헌 이야기거리를 품고 살주마썸. 섬사름덜은 회로애락의 삶을 바당 우의 폐 놓아마썸.

난양, 가끔 제주어 구술 채록을 위해 어촌마을로 조사를 나갑네께. 나가 만나는 사름 가운데양, 바당을 터전으로 삶을 영위하거나 영위해난 잠녀들이 하주마썸. 잠녀는 지역에 들랑 ‘즈네’, ‘즈녀’, ‘즈수’엔도 곱읍네께. 췌근 조살 멩겨은 성산읍 온평리선양, ‘잠녀’엔 흐는 말 대신 ‘즈수’엔 흐는 말을 더 하여 쥌다. 요조금은 ‘즈수’나 ‘즈녀’ 대력으로 ‘헤녀’엔 흐 말이 보편적이라마썸. 개인적으로 난양 ‘잠녀’를 선호하며마썸.

‘잠녀’는 기랑에 들랑 물질 잘흐민 ‘상군’, 중간 정도민 ‘중군’, 못흐민 ‘하군’이엔 험니께. 기랑이 막 튀어난 사름 7란 ‘대상군’이엔 흐곡, 기랑이 형편웃이민 ‘똥군’이엔 흐는 비유적인 표현도 쥌다. ‘상군’광 ‘중군’광 ‘하군’은 기랑이 뜨나부난 물에 들곡 나는 시간도 뜨나 마썸. 경허난 온평리선양 ‘불턱’도 ‘상군 불턱’, ‘중군 불턱’이 트로 셔났넨 험테다. 경허난 물질 기랑에 들랑 상군덜은 ‘상군 불턱’, 중군덜은 ‘중군 불턱’을 이용홀 수베키 엇섯다.

‘불턱’은 물질홀 때 잠녀들이 옷 곱아입거나 언 몸을 녹이게끔 불을 출수 이신 금남(禁男)의 공간이다. 잠녀덜이 하나 둘 돌을 올리멍 멩근 브름막이 공간 ‘불턱’에서 우알 질서가 뚜렷헌 공동체를 형성해났넨마썸. 미녕으로 멩근 ‘소중이’를 입영 물질홀 뎡양 이삼 십분 정도 물질허당 나왕 ‘불턱’서 불을 초앗주만 1970년대 이후 고무옷이 나왕은 너댓 시간씩 바당에서 살아도 언 줄을 몰른넨마썸. 경허난, 옷을 곱아입곱 언 몸을 녹이는 ‘불턱’ 대신에 돛인물이 광광 나오는 현대식 탈의장이 쟁기멍 ‘불턱’은 우리덜 기억 소곱의 서 있어부는 유물이 돼볼업수다. ‘불턱’을 ‘갯담’이렌 허는 디도 십테다.

흐때 메역이 둔 똤난 시절이 셔났수다. 개긔디 사름 가운데양, 놈의 눈 피행 밤의 몰르게 강양 메역을 즈물아난 추억을 아정 잇수다. 킷킷헌 어둠 소곱의서 메역을 즈물기 위행은 바당 소곱의서 너올대는 해조류가 메역인지 아닌지를 구분흐는 기술이 셔야 험네께. 그 기술 가운데 하나가 해조류에 ‘살[쌀]’이 신지 웃인지 그 유무를 파악흐는 일이라 마썸. 이디서 ‘살’은 해조류에서 번쩍이는 광택을 말흐는 거우다. 밤이민 이 ‘살’이 물소곱 의서 빛을 번쩍거리는디, 빛디 걸름으로 사용해난 듬복엔 ‘살’이 쥌주만 메역엔 ‘살’이 웃어마썸. 경허난 어둠은 밤의 ‘도둑 물질’ 홀 뎡양, ‘살’ 웃이 흔들리는 검은 물체를 비어 내민 그것이 바로 메역이라났넨 곱읍테다. ‘살’은 나가 온평리 잠녀를 조사흐멍 수집헌 어회로, 이 글에서 체암 보고흐는 미등록 어회우다.

‘양살기(양살귀)’도 온평리 잠녀의 기억 저편의서 퍼 올린 보배로운 제주어우다. 지금 7장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등 제주어 사전 표제어로 올라 잇지 아년 양살기양, ‘살’이 양삭험 성숙헌 구쟁기를 말흐는 거우다. 이때 ‘살’은 밤의 해조류에서 빛을 내는 ‘살’광은 뜨나게 ‘구쟁기 돌기’를 말흐는 거우다.

구쟁길 제주서는 ‘구쟁기, 구쟁이, 구제기, 고통’이엔 볼름네께. 이 구쟁기도 크기에 들랑 어린 구쟁길 ‘조쿠제기, 조쿠쟁이, 쥌쥌구제기, 쥌쥌고통’이엔 허곡, ‘살’이 양삭험 성숙헌 구쟁길 ‘쌀구쟁이, 쌀구제기, 쌀고통’, ‘살[쌀]’이 문드러진 늙은 구쟁길 ‘민둥구제기, 문둥구제기, 문둥구쟁이’엔 험디다. 이것 말양 온평리선양 어린 구쟁길 ‘쟁쟁이’, ‘살’이 양삭험 구쟁길 ‘양살기’, ‘살’이 문드러진 구쟁기 7라는 ‘민둥구제기’렌 흐영 딴 지역광은 트난 어형의 제주어를 쥌다.



이처럼 제주 바닷 생명천양, 지역에 들랑 독특한 이름덜을 간직하고 잇수께. 경허주만 제주 사름덜의 삶의 환경광 바닷 생태 환경이 바뀌멍 고갱이 그튼 그 어형덜도 자췌 감 좌불업수다. '미기록 제주어'를 만날 땐 가슴이 쿵쿵 튀곡 슬 떨리는 지뽀도 맛볼 수 잇수 다. 나가양 미지의 제주어를 좇쟁 제주 사름덜 삶의 현장을 누비는 이유도 이처럼 행 운을 누릴 수 잇텐 호는 기대감 따문어우다. 더 늦기 전의, 석상빔을 보지 못허였거나 스 라져가는 조상덜의 삶의 언어에 생명력을 불어놔사 허지 아너쿠과?



표준어로 읽기

제주는 뱅 돌아가며 바다로 둘러싸인 섬마을이다. 그래서 제주 사 람 들은 바다와 관련한 많은 이야깃거리를 품고 산다. 섬사람들은 회로에 락의 삶을 바다 위에 펼쳐놓는다.

나는 가끔 제주어 구술 채록을 위해 어촌마을로 조사를 나간다.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는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하거나 영위했던 잠 녀들이 많다. 잠녀는 지역에 따라서 '즈네', '즈녀', '즈수'라고도 한다. 최 근 조사를 다녀온 성산읍 온평리에서는 '잠녀'라는 말 대신에 '즈수'라 는 말을 더 많이 썼다. 요즘은 '즈수'나 '즈녀' 대신에 해녀라는 말이 보 편적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잠녀'를 선호한다.

'잠녀'는 기량이 따라서 물질을 잘하면 '상군', 중간 정도이면 '중군', 못하면 '하군'이라고 한다. 기량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두고는 '대상군' 이라고 하고, 기량이 형편없으면 '퐁군'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기도 한다. '상군'과 '중군'과 '하군'은 기량이 달라 물에 들고 나는 시간도 다 르다. 따라서 온평리에서는 '불턱'도 '상군 불턱', '중군 불턱'이 따로 있 었다고 한다. 그래서 물질 기량에 따라 상군들은 '상군 불턱'을 중군들 은 '중군 불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불턱'은 물질할 때 잠녀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추위를 녹이기 위하여 불을 쬐 수 있는 금남(禁男)의 공간이다. 잠녀들은 하나 둘 둘을 쌓아 만든 바람막이 공간인 불턱에서 상하 질서가 뚜렷한 공동체를 형성했 다. 무명으로 만든 '소중이'를 입어 물질을 할 때는 20~30분 정도 물질 하다가 나와 '불턱'에서 불을 쬐어야 했지만 1970년대 이후 고무 옷이 나 와서는 4~5시간씩 바다에서 살아도 추운 줄을 모른다. 하여, 옷을 갈 아입고 언 몸을 녹이는 '불턱' 대신에 온수가 광광 나오는 현대식 탈의 장이 생기면서 '불턱'은 우리들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유물이 되고 있 다. '불턱'을 '갯담'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다.

한때 미역이 돈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바닷가 사람 가운데는 남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미역을 갯담 추억을 갖고 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서 미역을 따기 위해서는 바닷속에 너울대는 해조류가 미역인지 아닌

지를 구분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 기술 가운데 하나가 해조류에 '살[쌀]'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파악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살'은 해조류의 변쩍이는 광택을 말한다. 밤이면 이 '살'이 물속에서 빛을 번 켜거리게 되는데, 발의 거름으로 사용했던 들펀에는 '살'이 있지만 미 역에는 없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도둑 물질'을 할 때는 '살'이 없이 혼 들리는 검은 물체를 베어내면 그게 바로 미역이었다고 한다. '살'은 글 쓴이가 온평리 잠녀를 조사하면서 수집한 어휘로, 이 글에서 처음 보고 하는 미등록 어휘다.

'양살기(양살귀)도 온평리 잠녀의 기억 저편에서 퍼 올린 보배로운 제주어다. 지금까지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등 제주어 사전에 표제어 로 올라 있지 않은 '양살기'는 '살'이 양상한 성숙한 소리를 말한다. 이때 의 '살'은 밤에 해조류에서 빛을 내는 '살'과는 달리 '소라의 돌기'를 말 한다.

소라를 제주에서는 '구쟁기, 구쟁이, 구제기, 고동'이라 부른다. 이 소 라도 크기에 따라 어린 소라를 '조쿠제기, 조쿠쟁이, 좁쌀구쟁기, 좁쌀 고동'이라고도 하고, '살'이 왕성한 성숙한 소라는 '쌀구쟁이, 쌀구제기, 쌀고동', '살[쌀]'이 문드러진 늙은 소라를 '민둥구쟁기, 문둥구쟁기, 문 둥구쟁이'라고도 한다. 이와 달리 온평리에서는 어린 소라를 '생쟁이', '살'이 양상한 소라를 '양살기', '살'이 문드러진 소라는 '민둥구쟁기'라 고 하여 다른 지역에서와는 딴 어형의 제주어를 쓰고 있다.

이처럼 제주 바다 생명체는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이름들을 간직하 고 있다. 그러나 제주 사람들의 삶의 환경과 바다 생태 환경이 바뀌면 서 고갱이 같은 그 어형들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미기록 제주어'를 만 날 때는 가슴이 쿵쿵 뛰고 살 떨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내가 미지의 제주어를 찾으려고 제주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누비는 이유도 이런 행 운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세상의 빔을 보지 못했거나 사라져 가는 조상들의 삶의 언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하 지 않을까?



제주국제관악제

금빛 나팔소리, 제주섬을 휘감다

국내외 관악인들의 축제인 2016 제주국제관악제가 8월 8일 개막해 16일까지 9일간 제주도를 금빛 선율로 물들인다.
관악제에는 23개국 관악인 2천500여 명이 참가하며 서귀포예술의 전당에서 개막공연을 펼친다.
문예회관 대극장에서는 8~15일까지 매일 오후 3시에 실내 공연을 펼친다.
9일 마에스트로 콘서트 I,
10일 라이징스타마에스트로 콘서트 II 등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마련한다.



주제: 섬, 그 바람의 울림!
기간: 2016. 8. 8.(월)~8. 16.(화)
장소: 제주문예회관, 제주해변공연장, 서귀포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서귀포예술의 전당, 서귀포관광극장, KBS공개홀 등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문의: 064-722-8704 www.jiwef.org



광복절인 8월 15일에는 참가팀들이 광양로터리~제주해변공연장 거리를 행진하고 제주윈드오케스트라 등이 해변공연장에서 경축음악회를 연다.
제주해변공연장과 서귀포 천지연폭포 야외 공연장에서는 여름밤 더위를 날릴 시원한 관악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문화 소외지역이나 제주의 명소 등을 찾아 연주하는 '우리동네 관악제'도 도내 곳곳에서 펼친다.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지난 1995년 시작해 올해로 21회를 맞은 이번 관악제에서는 제11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경연도 함께 열린다.
올해 관악제 행사는 8월 16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입상자들의 음악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도두오래물축제

얼음같이 차가운 제주 용천수를 주제로 한 한여름 물 축제

도두동의 용천수는 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깊은 땅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여름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마을 사람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긴요하게 쓰여 왔다. 수맥이 오방(五方)에서 솟는다고 하여 오래물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하며, 도두동에서는 길이나 마당 등 아무 곳에서나 땅을 파면 샘이 솟았다고 한다.

도두동에는 오래물 이외에 생이물, 마구물 등의 용천수가 있어 한여름의 휴식처로 애용되고 있다.

2001년 지역 생태자원인 오래물과 도두봉을 테마로 축제를 시작해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를 활용한 대규모 에어 바운스에서 미끄럼틀을 타면서 즐거운 물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시원한 여름의 추억을 쌓을 수 있다.

부모님들은 용천수 지압석 발담그기 체험도 함께하며 더위를 잊는다. 바닷물고기 맨손잡기 체험, 도두 원담 수산물 잡기 체험, 요트와 카약체험 등 해양레저체험과 고무동력기 만들기, 물피리 만들기 등의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래물을 이용해 분수를 설치한 포토존은 장관을 연출한다.



기간: 2016.8.12.(금)~8.14.(일)
 장소: 오래물광장 및 도두항 일원
 주관: 도두오래물축제위원회
 문의: 064-728-4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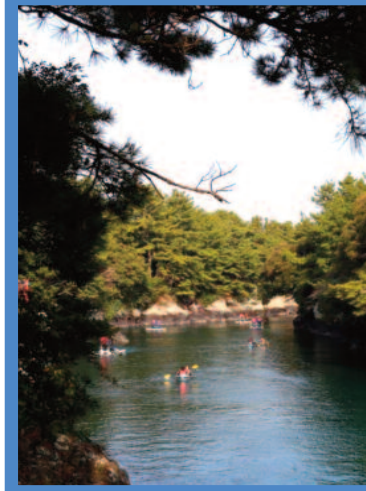


쇠소깍축제

‘제주의 비경’ 쇠소깍 해안 절경을 테우와 카약을 타고 돌아본다



쇠소깍은 서귀포칠십리에 숨겨진 비경으로 찾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어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곳이다. 요즘은 쇠소깍과 이어지는 해안 절경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또 이곳의 명물인 테우라고 하는 작고 평평한 뗏목은 줄을 잡아당겨 맑고 투명한 물 위를 유유히 가르며 계곡의 절경을 구석구석까지 감상할 수 있는 재미를 선사한다. 쇠소깍 축제는 2003년부터 ‘쇠소깍’의 아름다운 경관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쇠소깍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환경 사랑에 취지를 둔다.



기간: 2016. 8. 13.(토)~8. 14.(일)
장소: 효돈동 쇠소깍 및 하효항 일원
주관: 효돈동연합청년회
문의: 064-760-4627

축제 기간 내내 제주전통 배 테우, 쇠소깍의 명물인 투명카약,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제트보트, 하효바다 배낚시 무료 체험권 이벤트를 비롯해 맨손 고기잡기, 검은 모래 속 보물찾기, 소망풍선 날리기, 다우령 효돈굴 체험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호테우축제

제주 전통 떼배, 테우와 그물을 이용하여 멸치를 잡는 옛 모습 재현



기간: 2016. 7. 29. (금) ~ 7. 31. (일)
 장소: 이호테우해변
 주관: 이호테우축제위원회
 문의: 064-742-2501


이호테우축제는 이호동 주민들이 자체 기획한 해양문화 축제이다. 이 축제는 바다와 함께 생활해 온 제주인의 역사와 삶의 터전으로 남아 있는 제주 전통 떼배인 테우와 그물을 이용하여 멸치를 잡는 옛 모습을 재현 한다. 올해로 13회째 맞는 이 축제는 제주어촌 마을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름축제이다. 이호테우축제장에서는 밤바다를 밝히는 해상 해너햇볼 퍼레이드, 주요 테마행사인 멍그물칠(멸치 그물잡이) 재현 등이 진행 된다. 또 멍그물칠 재현행사에는 이호동민속보존회의 구성진 멸치후리는 소리에 맞춰 접원들이 힘차게 그물줄을 당긴다. 백사장에 운집한 관광객과 도민 등 관람객들도 함께 그물줄을 당기면서 축제를 즐긴다. 축제기간 중 테우 노젓기 체험, 테우만들기 체험 및 경연, 돌그물인 원담 안에서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원담고기잡이 등 많은 체험 및 경연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예부터 이호 지역은 바다를 터전으로 한 어로 생활환경이 형성되어 왔으며, 어로 작업의 주요 도구는 테우였다. 테우는 한자어로 '벌선(筏船)'이라 하여 떼로 만들어진 배를 뜻한다. 제주 지역에서 예부터 연안 어업과 해조 채취 등에 이용되었던 테우는 제주 해양문화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나 현대로 들어오면서 그 자취가 사라지고 말았다.



제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다

코딩교육으로 미래산업의 주도권 잡는다



글 이재근 ((사)제주마을소소리문화연구소 이사)

어느 날 제주 도정에 대한 뜻밖의 기사가 나왔다. 학습에 관한 한 남다른 능력을 가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번에는 컴퓨터 코딩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알파고 이후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선택 폭은 단순하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 세대의 물결을 어떻게든 받아들여 활용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이를 외면하고 아날로그적 삶을 택하는 방법이다. 물론 두 가지를 다 택하는 것도 개인적인 선택이다.

4차 혁명시대 적극 대응 선택

원 지사의 코딩교육에 대한 선택은 제주도가 전자의 방법을 택했다는 메시지다. 언젠가 닥쳐올 극적인 미래가 멀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선택이다. 그 시작이 원 지사 자신의 코딩교육 체험이다. 원 지사는 이후 일주일가량 프로그래밍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기계가 두뇌를 대체하는 4차 혁명시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문제를 국가과제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원 지사가 코딩교육을 받으며 꺼내 든 말이다.

원 지사는 평소 여러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일자리가 몇백만 개씩 없어진다고 한다.”고 우려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마트폰의 수많은 앱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오바마와 스티브 잡스가 왜 코딩을 꼭 배워야 한다고 말했는지 궁금해서 직접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 후반기 주요 추진사업 될 것

원 지사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주목했다. 디지털시대에 맞는 창의력과 논리력을 키우기 위한 코딩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제주가 선두에 서겠다는 의지다. 민선 6기 후반기의 주요 추진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4차 산업 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

컴퓨터적 사고능력 키우는 것이 핵심

코딩교육은 단순히 아이들이나 청소년에게 컴퓨터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아니다. 코딩교육의 핵심은 컴퓨터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아직 정의나 방식에 있어 논란이 있지만, 그 핵심은 추상화와 자동화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실생활에서 닦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추상화해서 단순화하고 기호화해서 이를 다시 자동화된 코드로 풀어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향후 인간끼리의 대화가 아니라 인공지능과의 대화 혹은 사물과의 소통이라는, 아날로그형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그들 혹은 그것들과의 대화를 위한 소양교육으로 코딩교육이 위치한다. 필요할 경우 인공지능이나 사물을 제어하거나 적절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요지다.

코딩교육은 전 세계적 현상

새로운 세상을 대비한 언어교육은 한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자 불가피한 요소다. 정부는 물론 IT 대기업도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막 시작된 걸음걸이를 제주도에서 주도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현실성 없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나 전기차, 카본프리2030 등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픈 제주도정의 입장에서 보면 도전해볼 만한 시도다.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선도적인 지역은 있으나 절대적인 강자가 채 형성 되기 전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전체적으로 한국에 만연해 있는 하드웨어적 사고를 소프트웨어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어린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했다. 미국은 2011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했다.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모두를 위한 컴퓨터과학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2020년에 이르면 미국 내에서도 코딩 관련 일자리가 100만 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다.



영국은 2014년부터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5세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했다. 초등학교생들에게 디자인 의무교육을 시행한 데 이어 소프트웨어 의무교육도 도입한 것. 이밖에 유럽의 독일, 핀란드,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등에서도 몇 년 전부터 코딩교육을 진행 중이다. 다만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는 않다고 한다. 캐나다, 홍콩, 일본 역시 정부가 코딩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들에 비하면 한국은 조금 빠른 편이다.

한국 코딩교육 2015년부터 본격화

전 세계에 손꼽히는 IT 강국임을 자부하는 한국의 코딩교육은 2015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60개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 숫자는 올해 900개, 내년에는 2천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부터는 초·중등 일부 학년에서 정규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문제는 이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을 주도할 만한 철학과 실무적인 내용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나 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이다. 최근까지 교육대학 내의 컴퓨터 교육학과 인원수나 학과 수는 계속 감소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에서 코딩교육 강화에 나서려 하니 코딩교육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 기존에 코딩교육을 해왔고 할 수 있는 교사는 전국적으로 5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봄이 일고 있는 민간영역에서도 실제로 코딩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는 1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도내 교육환경 정립에 우선 집중

이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막 시작된 코딩교육의 한 복판에 제주도가 출사표를 던졌다. 제주도는 올해 코딩교육 시범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도내의 분위기를 띄우고 본격적인 도내의 교육환경을 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학교 정규과정으로 편입시키다 보면 준비와 정착을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므로 도와 교육청이 힘을 합해 저변 확대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민간기업들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교사양성, 자격증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올해 3가지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집중한다. 초·중등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저변확대, 찾아가는 코딩교육의 3가지 집중과제를 수행한다. 올해는 일단 활성화 하는 데 집중하고 진행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아 전문가들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올해 계획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면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교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로는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운영 프로그램을 덧붙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기간 운영되는 일주일 프로그램은 물론 한 달, 한 학기 등의 수준별 교육도 이루어진다.

교육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등 자칫 국내 표준에만 국한되어 진행되는 단계를 넘어 국제표준과 연결되는 교육체계를 갖추으로써 장기적으로 인재들의 국제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생각이 있다.

자격 갖춰진 민간기업과 협력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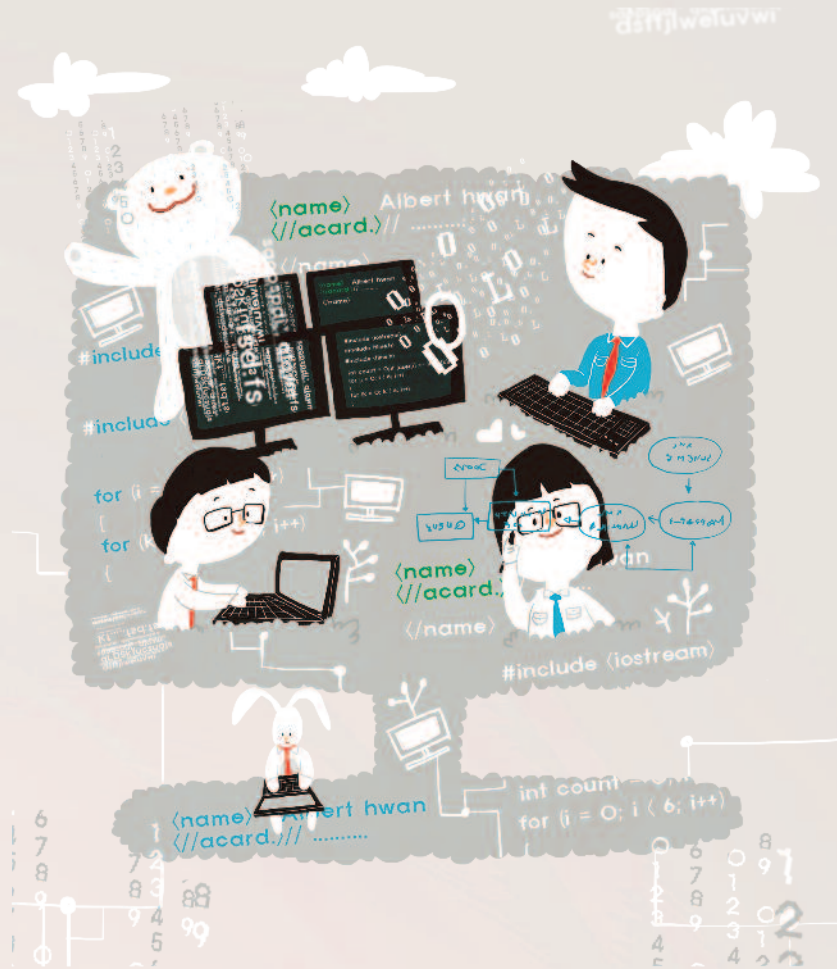
특히 코딩교육이 단순한 기능을 가르치는 이상의 것이 되기 위해 미래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직업군의 변화 등 직업체험과의 연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사양성 프로그램의 적극 운영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실제로 디지털 노마드 등 제주에 모이기 시작하는 IT 전문인력의 활동 근거지뿐 아니라 제주를 전국적인 코딩교육의 교사를 양성하는 메카로 삼겠다는 구상이 깔려있다. 여러모로 자격이 갖춰진 민간기업과 협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섰지만, 제주도가 코딩교육이라는 디지털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의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막 출발했다. 어쩌면 인공지능 시대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주도가 미래의 새로운 직업이나 산업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10년 후 미래산업 코딩교육과 직접 연관

최근 최고기업 삼성전자 역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인력 1%만이 구글에 입사할 수준”이라며 통렬한 반성과 함께 소프트웨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최고기업조차 인정하고 있다.

이쯤에서 2천여 명의 미래학자들이 세계미래 회의에서 2006년에 이어 2016년 밝힌 10년 후 미래산업 순위를 통해 미래의 신산업의 방향을 보도록 하자.



학자들이 제시한 10년 후 미래산업은 바이오, 나노, 디지털 모바일, 인공지능, 로봇산업, 인공두뇌, 환경공학을 꼽았다. 바이오와 환경공학을 제외하고는 코딩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산업군들이다.

학자들이 예측한 2020~2030년에 뜨는 신직업과 신직종을 보면 이 역시 명확해진다. 생소한 직업군도 있지만 이중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는 직업군이 대부분이다. 직업군 30위 안에 4차 산업 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만 10개다.

이들이 제시한 신직업/신직종들은 자동시스템 모니터 전문가(Automated Systems Monitor, 2위), 기계제품디자인 융합엔지니어(Mechatronics engineer, 8위), 가상 현실 디자인 설계사(Vertical Reality designer, 10위), 아바타 디자인 보안컨설턴트(Avatar design-security consultant, 11위), 로봇 정밀수술, 개인 건강관리 로봇기

술자(Personal Robot mechanic, 12위), 로봇이나 웨어러블 로봇 관리 엔지니어(Powered exoskeleton engineer, 13위), 온라인 사이버교육브로커(Online cyber education broker, 19위), 3D프린팅 건설 기술자(3D printing construction worker, 26위), AI장착 로봇, 무인차 조종사(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car controller, 27위), 로봇매뉴얼(Robot manual) 개발자(29위) 등이다.

가히 4차 산업혁명이 전 산업과 직업을 점령할 기세를 예측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을 리는 없겠지만, 그 틀에서는 비슷할 것이다. 코딩교육의 미래를 보여주는 셈이다.

스마트시티, 카본프리 아일랜드와 함께 미래의 제주도는 노력 여하에 따라 새로운 도약이 가능한 화살의 시위를 막 놓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제주만의 인증

Made in Jeju

제주상품 가치 빛낸다

화장품, 제주산 원료 상품 구분 투트랙 추진... 내년 1월 본격 운영
청정 제주 가치 반영... 소비자 신뢰도, 제품판매도 UP 기대

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제주도는 도내에서 생산하는 우수상품임을 도지사가 공식 인증하는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제주제품인증제도(Made in Jeju)는 화장품과 제주산 원료로 만든 상품을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시장에서 제주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등 소비트렌드 맞는 제품으로 확대

제주제품인증 제도의 기본 원칙은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 제주산 원료 및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 중 제주의 청정 가치를 반영한 일정 품질관리 기준 이상을 통과한 우수 제품에 대하여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농수축특산물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 등 최근 소비트렌드에 맞는 제품들로 확대 추진된다.

새로운 인증제도는 화장품과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 그 밖의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도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 최종기준 마련

우선 화장품은 다른 제품과 별도로 구분해 진행한다. 화장품을 다른 제품과 이원화해 실시하는 이유는 화장품이 식품,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과 다른 high-end 감성 산업이므로 화장품의 프리미엄성, 심미성, 감각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인증마크가 필요하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

화장품은 올해 5월 2일부터 청정 제주의 제주산 원료를 포함한 제주산 원료를 10% 이상 함유하고, 제주지역 소재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인증하는 것으로 총 5개 기업 25개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시행했다. 엘지생활건강, 미라클 코스메틱 및 유씨엘 등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 그 밖의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사용하게 될 새로운 인증마크인 통합상표는 지난 5월 4일 특허청에 출원됐다. 이르면 8월 중 특허청 심사가 마무리



리되어 상표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상표 디자인은 제주 퀄리티(Jeju Quality)를 의미하는 「JQ」와 제주산 원물 및 원료를 사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Made in Jeju」의 영문을 활용했다. 「J」는 제주도의 대표 상징물인 돌하르방의 형상을 결합하여 돌하르방을 만든 제주도 장인의 정신을 표현한 디자인이다. 「JQ」 품질인증마크 디자인은 제주를 수호해 주는 돌하르방처럼 제주에서 나오는 제품의 품질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제품인증제도를 뒷받침할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21일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되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제도를 마련하면서 도지사는 물론 도의회 의원,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은 제주의 청정가치를 담은 품질 인증 기준과 엄격한 사후관리 방안을 새로운 인증제도의 성공요건으로 꼽았다. 이에따라 10월까지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증기준과 사후관리 기준이 마련되면 특허청에 등록을 마친 인증마크인 통합상표를 포함해 Made in Jeju 인증제도를 국내외에 본격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 2017년 1월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제주산 사용 음식점 인증도 추진

한편 제주인증제도는 제주산 1차산업 특산품 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 인증을 추진 중이다. 현재 타지역에는 제주산 옥돔전문, 제주산 흑돼지 전문식당이라고 버젓이 광고판을 달

고 영업하는 매장이 다수다. 그러나 그곳 재료들이 제주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축산물과 수산물 주관 부서가 제주산 1차산업 특산품(돼지고기, 은갈치 등) 음식점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도안은 새롭게 제작되는 통합인증 도안(마크)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도지사가 음식점에 공급하는 재료(옥돔, 흑돼지)들이 제주산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음식점에 대하여 인증하는 것은 아니다.

화장품을 시작으로 새롭게 실시하는 제주제품인증 제도로 소비자들에게는 제주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수출품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 바이어들이 도지사가 인증하는 ‘Made in Jeju’ 인증제품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도내 수출기업 매출증가가 예상된다. 또 제주제품인증 필증을 획득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들이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고, 제주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제주산으로 둔갑시키는 상품과 확실한 차별화로 제주제품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Made in Jeju 인증제도의 브랜드 파워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품질기준임을 모두가 강조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 도정을 비롯해 생산자 및 기업인, 도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주의 장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제품임을 보장하고 이를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판매할 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세계에서 제주산품의 가치가 빛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 ‘제주’를 보라!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10주년 맞은 제주

글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10주년을 맞은 제주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 ‘도제 70주년, 특별자치도 10주년’을 맞아 제주도의 발전상이 도내외적 관심을 끌고 있다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는 전국 인구의 1%, 국토의 막내에서 환경과 문화, 관광과 IT, 일자리와 인재가 모여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窓)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제주는 현재 평화, 상생, 미래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주는 전기자동차와 스마트그리드, 풍력발전 등 글로벌 에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특화된 사업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단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관광과 결합한 스마트관광을 시작하는 등 미래산업 개척에도 한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평화, 상생, 미래산업의 전기 마련 중

제주는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 실시로 도와 북제주군, 남제주군 2개 군 체제가 시작됐다. 1955년 9월 1일에는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했고 1981년 7월 1일 서귀포시가 신설됐다. 2006년 7월 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 기간에 제주는 눈부신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근년 들어 외국인 투자유치, 관광객 증가, 인구 유입 등 급속하게 외형적 성장을 이루면서 제주의 발전상은 상전벽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주요지표 통계수치를 통해 보더라도 제주의 발전상은 두드러진다.

1946년 인구는 26만6천 명에서 2015년 64만1천 명으로 2.4배 증가했다. 공무원 수는 384명에서 5천255명으로 13배 증가했다. 관광객은 통계기록이 있는 1970년 24만5천 명에서 1천364만4천 명으로 55배나 늘었다. 자동차 등록은 113대에서 43만5천대로 약 3천850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제주의 외적 성장 이면에는 낙관적인 발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과 보존의 대립과 반목으로 도민사회가 흔들리기도 했다.

청정과 공존의 섬 형성에 에너지 총력

민선 6기 도정 출범 이후 제주는 청정자연을 보존하는 원칙으로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을 반영해 난개발 방지, 친환경 성장, 도민의 삶의 질, 일자리, 관광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청정과 공존의 섬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

민선 6기 전반기를 마친 원희룡 제주지사는 민선 6기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민선 6기 도정보고서'에서 도제 실시 70주년과 특별자치도 10주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원 지사는 “아직은 부족한 게 많다. 부동산 가격 안정, 대중교통체계 개편, 생활 쓰레기 처리, 하수처리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민생관리시스템 전반에 혁신을 기해 나가겠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취임하면서 도민과 약속했던 사항을 모두 해결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주춧돌 하나를 더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제 실시 70주년 및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이하

여 제주 도정은 올해를 “제주 제2 도약의 해”로 삼고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제 70년! 청정의 가치로 공존의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와 혁신, 청정과 공존의 미래제주를 상징하는 로고 및 슬로건을 선정, 도민사회의 공감 확산과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청정과 공존 등 제주의 가치를 담은 기념식을 비롯하여 제주정책박람회, 제주국제관악제, 제주판타지 콘서트 등의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기념식이 8월 1일 오후 6시 관덕정 야외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제주목 관아에서 정책박람회가 열려 ‘제주살이 할 말 하우다 양’이라는 토크 콘서트와 시민사회단체, 도의원, 학생, 교육청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 등을 개최한다.

8월 8일~16일까지 제주국제관악제가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제주문화예술회관, 제주해변공연장,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도 일원에서 연다.

이밖에 제주 판타지 콘서트가 8월 27일~28일 양일간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열려 한류스타 등 영뮤지션 공연, 양방언과 영뮤지션의 콜라보레이션 및 기타 음악공연을 펼친다.

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문화예술 섬’을 주제로 열고 있다.





서귀포칠십리축제

제22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칠십리의 맛과 멋 그리고 문화!
기간 9.30.~10.2.(예정)
장소 서귀포 지구리공원 및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일원
문의 064-760-3946

제9회 추자도 참굴비대축제
명품 추자도 참굴비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
기간 9.30.~10.3.
장소 추자항광장 일원
문의 064-728-4265

September 9



추자도 참굴비대축제

2016 제주의 가을축제



제주마축제



제주마축제
말산업의 메카인 제주에서 열리는 마(馬)축제
기간 10.14.~10.16.
장소 렛츠런파크 제주(구 제주경마공원)
문의 064-786-8251

제23회 정의고을전통민속재현축제
민속의 고장 성읍민속마을에서 열리는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
기간 10.15.~10.16.(예정)
장소 성읍민속마을 남문광장
문의 064-760-4413

2016 제주프린지페스티벌
예술과 호흡하는 원도심 문화축제
기간 10월 중
장소 제주시 삼도2동 문화의거리 일대
문의 064-758-0331

October 10



제주감굴박람회

2016 제주감굴박람회
세계속의 명품감귤을 주제로 한 박람회
기간 11.9.~11.13.
장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및 감굴박물관 일원
문의 064-710-3193

제16회 최남단 방어축제
싱싱한 방어 맛보세요
기간 11.11.~11.13.(예정)
장소 모슬포항 일원
문의 064-794-8032

November 11



덕수리전통민속축제

제25회 덕수리전통민속축제
덕수리에서 쇠·불·혼이 빚어낸 '불미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민속축제
기간 10.1.~10.2.
장소 덕수리민속공연장 (제주조각공원 옆)
문의 064-760-4315

제55회 탐라문화제
문화왕국 탐라, 신명을 펼쳐라!
기간 10.5.~10.9.
장소 제주시 탐동광장
문의 064-753-3287



탐라문화제



혼인지축제

제7회 혼인지축제
탐라개국 삼신과 벽랑국 공주의 결혼이야기
기간 10.29.~10.30.
장소 성산읍 온평리 일원
문의 064-760-4273

우도소리축제
우도 특산물 '뿔소라'와 땅콩이 영그는 가을,
우도에서 즐겨요!
기간 10월 중
장소 우도면 일원
문의 064-728-4322



제주프린지페스티벌

제주도의 푸른밤



제주특별자치도

blog.naver.com/happyjeju

블로그에 오시면 제주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축제 등 제주소식을 한 눈에 알수 있어요~!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happyjeju>
-  Twitter <https://mobile.twitter.com/happyjeju>
-  Kakaostory <https://story.kakao.com/ch/inusjeju>
-  Instagram https://instagram.com/special_jeju

흔저옵서예



세계자연유산 제주

한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한 산과 바다

그리고 신록의 숲에서의 흙 한 줌, 야생화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모든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베풀어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주 곳곳의 길을 걷고, 산과 오름을 오르고, 섬을 찾노라면,

일상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얼굴에는 작은 미소를 드리우게 합니다.

제주는 바로 힐링의 섬입니다.